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서
2016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서
2016



- I. 나눔교육 해외연수 개요** 5
 - 1. 연수기간 6
 - 2. 연수국가 6
 - 3. 연수목적 6
 - 4. 연수 참가자 6
 - 5. 연수일정 7

- II. 미국의 나눔교육** 9
 - 1. 개념 이해 10
 - 2. 미국(미시간주/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12
 - 3.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사례 13
 - 4. 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사례 17

- III. 방문기관 및 연수내용** 21
 - 1. 존슨센터(Dorothy A. Johnson Center for Philanthropy) 22
 - 2. 러닝투기브(Learning To Give) 34
 - 3. 그랜드래피즈 지역재단(Grand Rapids Community Foundation) : YAC .. 50
 - 4. 미시간재단협의회(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 57
 - 5. 청소년 배분위원회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 61
(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 6. 인디애나대학교(Lilly School for Philanthropy) 71
 - 7. 라일리어린이재단(Riley Children's Foundation) 76
 - 8. 인디애나 필란트로피연합(Indiana Philanthropy Alliance) : YPII 81
 - 9. 제너레이션온 인디애나(GenerationOn Indiana) 89

I

나눔교육
해외연수 개요

1. 연수기간 : 2016년 6월 21일(화) – 6월 30일(목)

2. 연수국가 : 미국(그랜드래피즈, 인디애나폴리스)

3. 연수목적

1) 나눔교육 벤치마킹

- 미국의 나눔교육(philanthropy education)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재단) 나눔교육에 접목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신규 교육 모델 개발 및 장기비전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2) 나눔교육 전문가 양성

- 재단 나눔교육의 주축인 반딧불이가 미국의 다양한 나눔교육 사례를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안 개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3)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 연수를 통해 관계를 맺은 해외 유관 기관들과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나눔교육 네트워크를 만든다.

4. 연수 참가자

이름	소속	비고
길영인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김명주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김인숙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박수진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박은주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박혜란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변선희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송은옥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조영실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딧불이	
안효미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간사	
정미희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간사	
박신영	그랜드밸리주립대 석사과정 *2014 재단 기부문화석박사연구지원 사업연구자	현지 코디네이터

5. 연수일정

일자	주요내용	함께 하는 사람
6/21	16:04 Arrive	Dr. Hoffman
6/22	10:00-12:00 Johnson Center	Kyle Caldwell
	13:30-16:00 What is Philanthropy? Documentary	Dr. Alaimo
	16:00-17:00 State of Generosity demonstration	Kathy Agard
	18:00-20:00 Round table about Philanthropy education	
6/23	9:00-12:00 Training by LTG & GRCF(YAC)	Betsy Peterson
	13:00-14:00 YAC(Grand rapids community foundation)	Cris Kutzli
	15:00-16:00 YAC(Holland / Zeeland community foundation)	Mike Goorhouse
6/24	9:00-13:00 CMF	Rob Collier
6/25	8:30-21:00 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Chelsea Holmes
6/26	Move to Indianapolis	
6/27	9:00-10:30 Lilly family philanthropy Foundation	Patrick Rooney
	11:00-12:30 Riley Children's Foundation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	Susan Miles
	14:00-16:00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YPII)	Jill Gordon
6/28	9:00-11:00 generationOn(Indiana)	Joan Belschwender
	Move to Grand Rapids	
	18:00 Korean Connection	Korean Connection Board Members
6/29	8:15 Departure	

II

미국의 나눔교육

1. 개념 이해

1) K-12

-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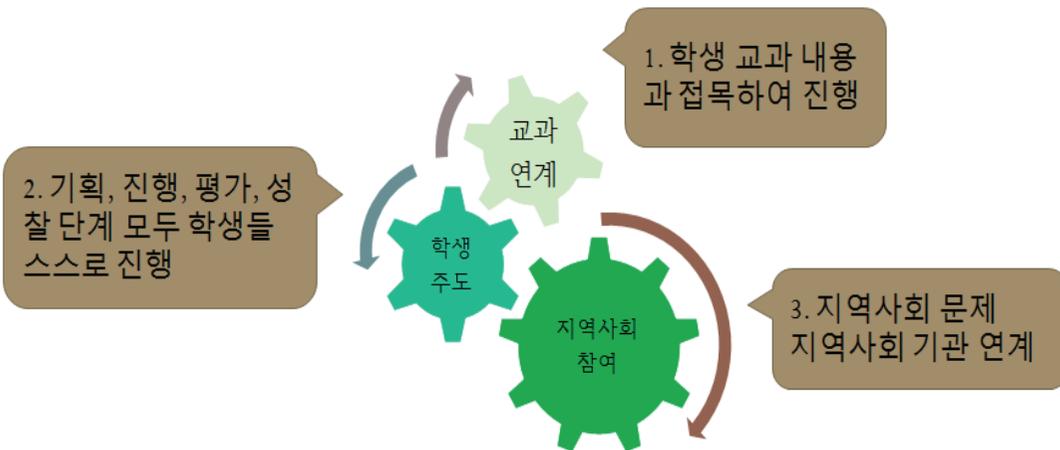
2) 필란트로피(Philanthropy)

- 자선 혹은 박애
- 인간의 인격·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종교·습관·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 연대적 실천을 의미한다.
 - Voluntary Action for the common good.
 - Giving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

3) 필란트로피 교육과 서비스러닝(Philanthropy Education and Service Learning)

필란트로피 교육은 미국의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필란트로피의 지식, 기술, 행동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우리 일상에서 왜, 어떻게 나누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러닝은 교사가 학습(교과내용)과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필란트로피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진행, 평가, 성찰단계를 따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러닝은 학생들이 의미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과정마다 필란트로피 교육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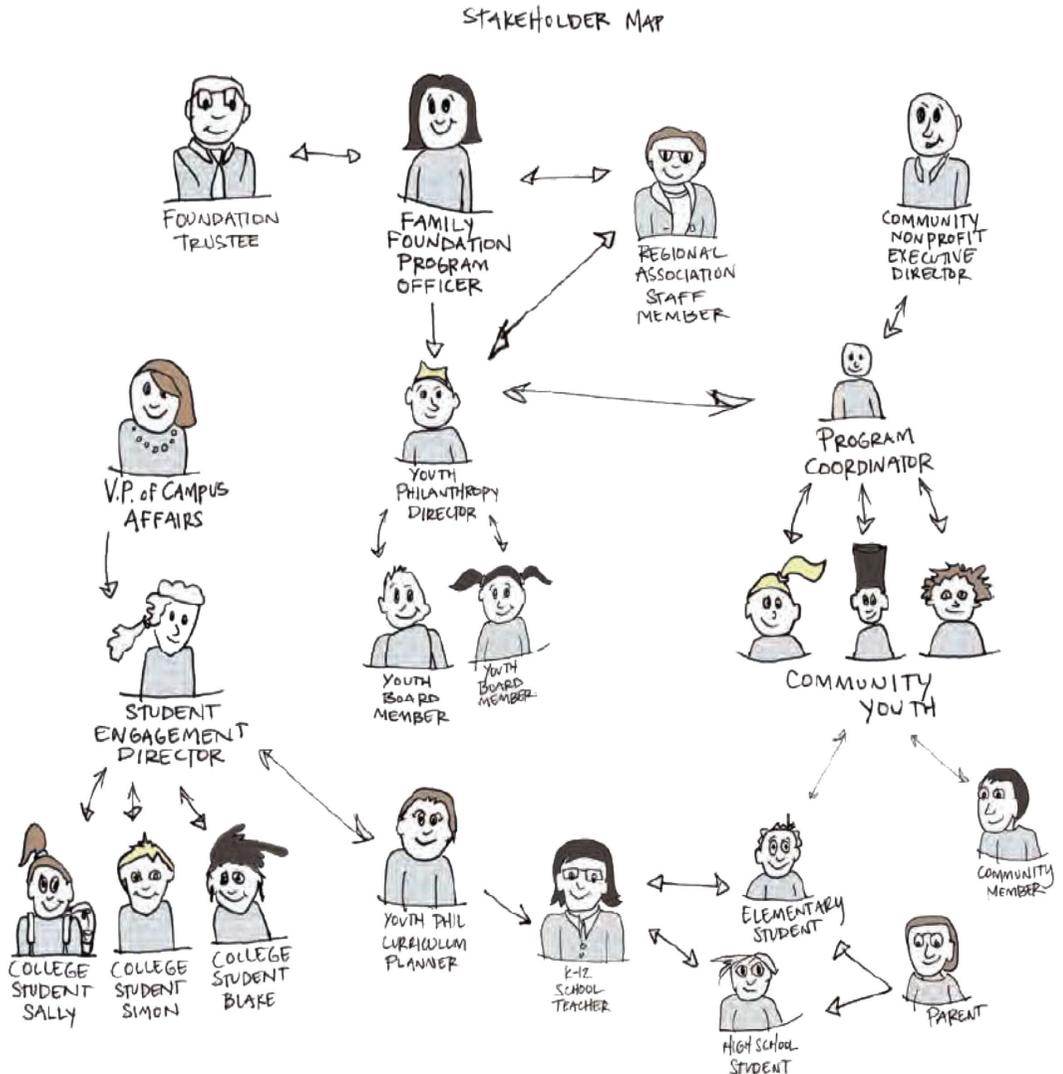
[서비스러닝의 개념적 특징]

*출처-니눔교육 해외연수 사전교육자료(박신영/그랜드밸리주립대)

3) 유스 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

유스 필란트로피는 청소년들이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는 것, 즉 그들의 시간(time), 재능(talent), 물건(treasure), 관계(ties)와 지역사회 자산을 이용하여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스 필란트로피는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교, 재단, 온라인커뮤니티,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 재정상황,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배분(grantmaking), 모금(fundrasing), 봉사(service) 등 다양한 모델로 존재하며, 그만큼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뤄지고 있다.

유스 필란트로피는 다양한 모델(방법)으로 이뤄지지만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유스 필란트로피 이해관계도 예시]

*출처-Scanning the landscape of youth philanthropy(Foundationcenter,2014)

2. 미국(미시간주/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1) 배경

미국의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은 1980년대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작은 정부와 큰 시민사회를 지향한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필란트로피가 미국 사회를 발전, 지탱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불황과 더불어 세대가 바뀌면서,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협동(공동체)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생겼다. 그에 따라 다음세대에게 시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필란트로피’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또한 필란트로피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는 청소년을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던 것에서 ‘지역사회의 자산’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등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자산,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스 필란트로피가 더욱 확산 될 수 있었다.

2) 필란트로피 교육의 목적

필란트로피 교육은 청소년들이 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② 현재의 지역사회 이슈를 인식하여 ③ 공익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기부나 자원봉사 행위 자체보다 협동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필란트로피 교육 운영 구조

이번 연수를 통해 살펴본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의 유스 필란트로피는 각각의 기관이 운영기금을 만들고, 교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협의회가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개별 기관에 기금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 개별 기관은 지원받은 기금과 콘텐츠를 토대로 실행하며, 그 실행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는 다시 재단협의회를 통해 축적되고 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별 기관의 성공이 아니라, 전체의 유스 필란트로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구분		역할
자원(기금)		필란트로피 교육 및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기금 지원
중간지원	촉진	필란트로피 교육 관련 기관 연합, 파트너십, 교육 등 필드 전체 성장 촉진
	교안 (가이드)	필란트로피 교육 필요성 안내, 교안 및 가이드, 프로젝트 기금 연계 제공 등 활동 촉진
실행		각 기관/지역 특성에 맞게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
연구/리소스		필란트로피 관련 연구/교육자료 생산, 프로그램 성과 평가연구를 통해 효과성 증진

[필란트로피 교육 운영 구조]

3.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사례

미시간주의 유스 필란트로피 사례로 학교 교사들이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의 교안을 토대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필란트로피 교육과 지역재단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배분을 실행하는 YAC(Youth Advisory Committee : 청소년 위원회)을 들 수 있다.

1) 실행프로그램(Youth Advisory Committee : 청소년 위원회)

① YAC(Youth Advisory Committee : 청소년 위원회) 개요

YAC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조사를 하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직접 기금 배분 활동을 하는 청소년 위원회이다.

1980년대에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s)의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배분(grantmaking) 과정에 참여하여 필란트로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CMF(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미시간 재단협의회)에서 켈로그재단(W.K.Kellogg Foundation)에 기금 출현을 제안하여 만든 미시간주의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젝트이다.

현재 미시간주의 약 1,500여명의 청소년이 86여개의 YAC에 소속되어 매년 총 150만달러를 배분하고 있다.

② YAC 주요 특징

YAC는 각각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재정적 특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운영방식

- 운영주체 : 미시간주 지역재단
- 운영기금 : 켈로그재단의 청소년기금 + 각 지역재단별 기금

나. YAC 참가자 구성

- 지역의 청소년(10세-21세)
- 지리적, 사회경제적, 민족적, 교육적으로 다양한 멤버로 구성
- 평균 20명으로 구성
- 한번 선출되면 평균 3년 정도 활동

〈멤버 선출 방법〉

-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선출
- 공식적 방법 : YAC에서 선발(지원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 학교교장/교사/카운슬러/청소년 기관 직원 등의 추천에 의해 등록하여 YAC가 최종 선발
- 비공식적 방법 : 구두 추천(멤버 모두가 동의)

* YAC의 주요 과제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주류에서 리더로 잘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멤버로 지원하게 하고 이들을 선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 YAC 주요 활동

- (지역사회) 욕구/자원 조사
 -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 모금
 - 켈로그 기금 외 별도로 배분할 수 있는 기금 모금
 - 잠재 기부자를 만나고, 사립재단에 제안, 모금 이벤트 계획
- 배분
 - 반응적(reactive) 배분 : YAC에 제안서가 왔을 때 심사하여 배분
 - 사전적(proactive) 배분 : 지역사회욕구 조사를 토대로 특정한 주제에 제안서를 내도록 안내하여 제안서를 받고 심사하여 배분
- 자원봉사활동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재밌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배분해 줌.

라. 교육 프로그램

- CMF에서 3명의 성인 스텝 및 어드바이저, 12명의 YAC 리더 멤버를 선발하여, 전체 트레이닝 (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기획 및 진행
- CMF 담당 스텝이 미시간주 전역을 방문,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 YAC 멤버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스킬 교육훈련
- 각 지역재단에서 별도로 활동에 필요한 교육 진행

마. YAC의 성인 어드바이저

- 1-2명의 성인이 자문 역할
- 지역재단의 총장 또는 간사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어른들이 자원활동으로 참여하기도 함.
- YAC 멤버들이 직접 성인 어드바이저를 직접 인터뷰하여 선발하기도 함.

2) 중간지원기관 : CMF(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 : 미시간 재단협의회)

① CMF 개요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와 비영리섹터와의 협력을 돕고, 필란트로피스트들(개인기부자, 재단-개인/기업/가족/지역재단)을 교육하고,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이다.

②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주요 역할 - YAC 운영

가. 유스 프로젝트(Michigan Community Foundation's Youth Project) 기금 지원

CMF가 켈로그재단에 제안하여 유스 프로젝트 기금(Youth grant)을 만들어 각 지역재단에 씨앗 기금으로 분배하였다. 청소년들은 지역재단의 YAC(Youth Advisory Committee)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조사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비영리단체에 기금을 배분한다.

나. 교육/컨설팅 제공

각 지역재단의 YAC 청소년과 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컨퍼런스(연1회)를 진행하며, CMF 담당 스텝이 각 지역재단을 방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며 YAC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다. 리소스/사례 공유

각 지역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YAC 활동 자료(지역사회조사표, 어드바이저 Job description 등)와 사례를 CMF가 모아서 공유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BEST PRACTICE를 만들어 지역재단이 YAC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주요 역할 - LTG 운영

CMF는 YAC 활동이 지역의 일부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서 필란트로피를 배울 수 있도록 LT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LTG는 교사들이 학급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안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학급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기금을 연계, 지원해 준다.

3) 연구/리소스 제공 : 존슨센터(Dorothy A. Johnson Center for Philanthropy)

① 존슨센터 개요

존슨센터는 필란트로피를 연구하는 그랜드밸리주립대학교의 부설 연구소로 기부자와 재단들이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부와 배분을 하여 효과적인 필란트로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전략 등 맞춤형 연구와 지식,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금, 조직관리, 전략계획, 협력 등의 영역과 관련한 일대일 컨설팅, 교육, 기술적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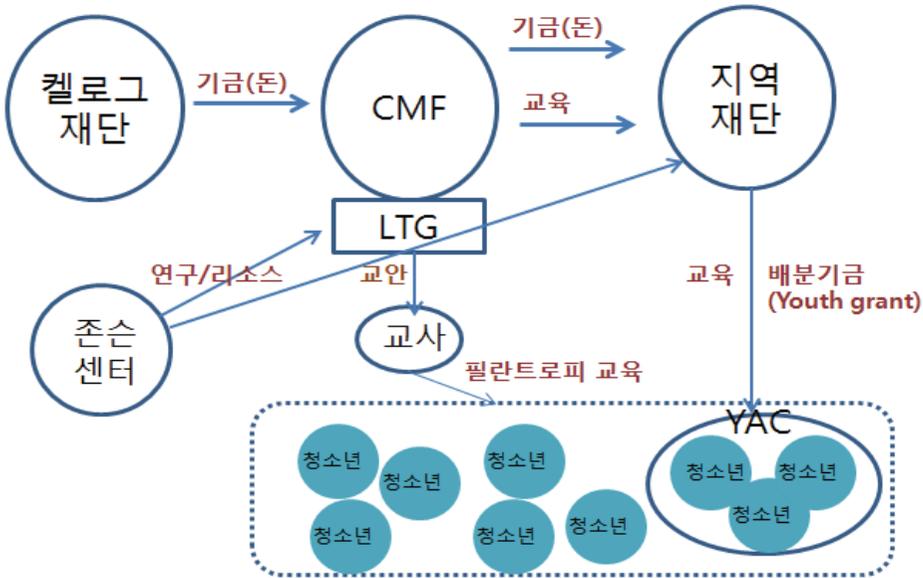
②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역할

1) 리소스 제공

존슨센터는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전반-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역사와 현황(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필란트로피 교육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역사를 아카이빙한 'Our State of Generosity' 연구 결과 중, 다음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LTG에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연구

필란트로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부자, 재단, 비영리단체 스템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존슨센터의 주요 역할이다. 그 일환으로 미시간주의 유스 필란트로피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YAC의 20년 성과를 연구하였으며, 그 외 존슨센터에서 연구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단과 비영리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유스필란트로피에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운영 구조 : YAC 사례]

4. 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 사례

인디애나주의 유스 필란트로피는 지역재단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재단, 비영리단체, 청소년 기관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모금, 배분,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기관에게 교안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YPI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Indiana)나 generationOn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 중간지원조직 1- YPI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Indiana)

① 개요

인디애나주에서 기금을 배분하는 개인, 기업, 지역 재단, 정부기금 등의 연합체인 인디애나 필란트로피 연합(Indiana Philanthropy Alliance)에서 인디애나주의 유스 필란트로피 발전을 위해 YPI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Indiana)를 만들었다. YPII는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 기관에 교육과 가이드, 컨설팅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여개의 기관들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적인 미팅 및 필요한 리소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②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역할

YPII는 지역재단과 비영리단체에 컨설팅 제공, 기술적인 지원, 교육 리소스 제공, 교육훈련,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인디애나주 유스 필란트로피의 전체적인 향상을 돕는다.

가. 교육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YPII 담당 스텝과의 상담
- 유스 필란트로피 컨퍼런스
- 맞춤형 유스프로그램 교육훈련
- 유스 필란트로피의 트렌드 및 좋은 사례
- “Phil & His Family’s Adventures In Philanthropy” 리소스 오리엔테이션

나. 네트워킹

- 인디애나주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
 - 인디애나주에서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매월 정기적인 미팅 및 교육을 진행하며 유스 필란트로피 성장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무자들을 돕는다.
 - 유스 필란트로피를 활발히 진행하는 단체의 노하우를 웨비나(webinar :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원격교육, 실시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교육하고, 이들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교안, 사례 등을 만들고 확산한다.

2) 중간지원조직 2 : generationOn Indiana(제너레이션온 인디애나)

① 제너레이션온 인디애나 개요

generationOn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향하는 전국조직인 촛불재단에서 만든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이다. 제너레이션온은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 아이디어, 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학교, 방과 후 클럽, 가정 등에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인디애나주의 경우, 촛불재단 기금 외 릴리 재단(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증진을 위한 가족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 모금, 배분 등 다양한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을 이어가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역할 - 학교를 통한 유스 필란트로피 확산 노력

가. 필란트로피 교육 안내

IMLEA(The Indiana Middle Level Education Association, 인디애나중등교육연합)과 협업하여 학교 교사에게 필란트로피 교육을 알리고 과목별 교사모임 또는 교장 모임에 참석하여 교사들이 필란트로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가이드(교안) 및 프로젝트 기금 지원

제너레이션온에서 제작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학교(generationOn Schools)와 방과 후 클럽(generationOn Clubs)을 통해 학생들이 필란트로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필란트로피 활동(프로젝트)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3) 연구/리소스 제공 : 인디애나대학(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① 개요

1980년대 중반 필란트로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의 필요성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인디애나대학교가 모금학교(The Fund Raising School)를 포함한 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여 릴리기증주식회사가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설립된 필란트로피 전문 연구소로 GIVING USA를 비롯한 다양한 필란트로피 연구로 필란트로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② 유스 필란트로피에서의 역할

LTG, 제너레이션온 활동 성과 연구 등을 진행하며, 필란트로피 교육의 효과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4) 개별 기관 프로그램 사례 : KCS(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

① 개요

라일리어린이재단은 인디애나주의 어린이병원인 라일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도 모금을 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KCS(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CS는 주로 학교에서 참여를 하며, 참가한 어린이들이 모금한 돈은 라일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연구(치료법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요특징

가. 운영방식

라일리어린이재단의 KCS는 학교나 방과 후 그룹 단위로 어린이들이 라일리 병원의 연구(치료법 개발) 비용을 위한 모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 아이디어와 모금 이벤트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모금도구(모금함, 포스터 등)를 제공한다.

라일리어린이재단은 별도의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학교나 그룹 교사들이 LTG의 교안이나 제너레이션온의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라일리어린이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쉽게 모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한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라일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웨건에 학교 이름을 새겨주는 등의 리워드를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나. 참가자

학교(학급, 학교 전체)나 방과후 클럽 등을 통해 그룹단위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Ⅲ

방문기관 및
연수내용

기관명	 JOHNSON CENTER AT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홈페이지	http://johnsoncenter.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2일	담당자	Kyle Caldwell/Executive director

1. 존슨센터 개요

Dorothy A. Johnson Center for Philanthropy(이하, 존슨센터)는 1992년 켈로그재단과 Dorothy A. Johnson의 지원으로 그랜드밸리주립대학교(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의 Community and Public Service 학과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존슨센터는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부자, 재단, 비영리단체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금을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여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및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이 효과적인 필란트로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스 필란트로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란트로피 교육의 교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YAC의 20년 성과연구와 같은 관련 연구를 통해 미시간주 유스 필란트로피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1) 미션 또는 가치, 철학

“Trusted Guidance for Doing Good”



• 미션

- 공익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재단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 비전

- 공익(public good)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식과 리소스를 통해 가치 있고 효과적인 필란트로피를 만든다.

2.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존슨센터는 필요한 곳에 기부/배분하고, 그 돈이 잘 사용되어 지역사회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기부자/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

1) 기부자&배분기관(재단)을 위한 서비스

기부자와 재단들에게는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부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프로그램, 교육, 전략과 기금 성과 평가 서비스 그리고 수혜자 능력 향상(Grantee capacity building)등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연구와 지식, 교육을 제공한다.



LearnPhilanthropy(<http://learnphilanthropy.org/>) :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교육, 툴 제공뿐만 아니라 분야의 동료, 현장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2) 비영리단체(Nonprofit)를 위한 서비스

비영리단체의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금, 조직관리, 전략계획, 협력 등과 관련한 일대일 컨설팅, 교육, 기술적 지원하고 있다.

3) 지역사회조사/연구

존슨센터가 재단과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모든 교육 및 서비스는 미시간주의 인구통계학조사와 욕구조사 등 정확한 리서치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다. 2001년부터 200여개의 단체들이 효과적인 필란트로피를 위해 존슨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존슨센터는 기부자/재단, 비영리단체에서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실행방법과 툴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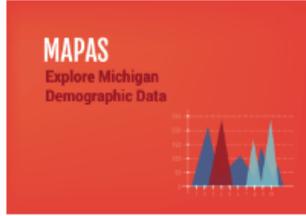
Community Profiles



Explore housing and economics data in Grand Rapids with this [interactive mapping and demographic snapshot tool](#).

Go

Michigan Demographics



Use the [MAPAS platform](#) to create and share color-coded maps across topics such as housing, education, and more.

Go

Community Snapshots



These [profiles](#) show key demographic and other data for West Michigan neighborhoods and counties.

Go

존슨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조사 데이터 :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Our State of Generosity

- 일자 : 2016년 6월 22일
- 함께 한 사람 : Kathy Agard

1. Our State of Generosity(OSoG) 개요

‘Our State of Generosity(이하 OSoG)’는 존슨센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40여년 넘게 이루어진 미시간의 필란트로피를 재단, 비영리단체의 문헌자료와 리더들의 인터뷰(경험)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웹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공유한 것이다.

미시간 필란트로피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필란트로피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교훈을 정리하여, 현재 재단과 비영리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툴킷과 LTG(Learning To Give)의 필란트로피 교육 교안으로 제공하고 있다.

2. OSoG 웹플랫폼 www.ourstateofgenerosity.org

OSoG의 웹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OSoG의 연구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OUR STATE OF GENEROSITY
Powered by the Johnson Center for Philanthropy

ABOUT PROFILES HISTORICAL DOCUMENTS TOOLKITS LESSON PLANS

Explore the Story of Michigan Philanthropy.
Create a blueprint for the future.

CHAPTER 1: Servant Leadership

CHAPTER 2: Power of Resources

CHAPTER 3: Philanthropy and Public Policy

CHAPTER 4: National and Global Engagement

CHAPTER 5: Lessons Learned

DEFINING: Michigan's Culture of Servant Leadership - Introduction
Servant Leadership in Michigan Philanthropy
Defining Philanthropy
Common Human Values

IN PRACTICE: Listen, Trust, Empower Local Leaders
Value All Philanthropy
Play Well with Others
Be Fearless, Be Patient

Our State of Generosity 웹플랫폼

- 1) **Chapter** : 4개 기관(CMF : 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 MNA: Michigan Nonprofit Association, MCSC: Michigan Community Service Commission, the Dorothy A. Johnson Center)들의 역사와 성공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다.
- 2) **Profile** : 미시간의 중요한 필란트로피 리더들, 프로젝트, 그리고 OSoG의 파트너 기관들의 이야기와 성취들이 담겨 있다.
- 3) **Audio and Video Interviews** : 필란트로피 리더들이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 4) **Historical Documents** : 4개의 기관들 학습을 위해 체계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존해온 다큐멘터리 데이터베이스이다.
- 5) **Toolkits** : OSoG를 토대로 얻은 교훈을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한다.
- 6) **Lesson Plans** : 다음세대에게 필란트로피 교훈과 가치들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활용하여 K-12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안 저장소이다.

OSoG에서 미시간 필란트로피스트들로부터 어떻게 비영리단체와, 정부, 기업의 리더들이 경쟁을 넘어 협력을 해왔는지 배울 수 있다. 이를 토대로 OSoG는 LTG와 연결하여, 교사들에게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관대함)와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영감을 주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레슨과 필란트로피 주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교사연수

필란트로피의 서번트 리더십과 관대함에 관한 온라인 미니코스 과정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관대함, 협력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다루며, 필란트로피 교육에 관해 교사들에게 영감을 준다.

•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

역사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큰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들은 먼저 봉사하기를 원하며, 그런 다음 리드하려고 했다. “서번트 리더의 9가지 습관”을 읽으면, 관대함과 서번트 리더십의 좋은 실행방법을 알 수 있다.

• 필란트로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Guiding Questions to Explore Generosity)

- 서번트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가 문제(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 변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만약 지역사회의 문제(니즈)를 본다면, 누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중, 고등학교 활동(예시)

- Double Puzzles : “서번트 리더’의 프로필을 읽고, 그들의 리더십의 철학을 나타내기
- Servant Leader Profile Project : 서번트 리더십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필란트로피스트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해보기
- Aunt has left you money : 상속받은 돈이 있을 경우,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할 지 선택해보기
- Oral History : 필란트로피스트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작성하기
- Time, Talent, and Treasure Activity: 어떻게 개인들이 필란트로피스트로서의 열정과 행동을 찾았는지 탐색해보기

3. OSoG의 핵심 교훈

OSoG를 통해 미시간 필란트로피스트들로부터 어떻게 비영리단체와 정부, 기업의 리더들이 경쟁을 넘어 협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배웠다. 이를 ‘16가지 핵심 교훈’과 ‘서번트 리더십의 9가지 습관’으로 정리하여 다음세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LTG의 필란트로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 16가지 핵심 교훈

1. 필란트로피의 증가와 향상에 초점을 맞춰라

미시간 리더들은 기부, 자원봉사, 공익을 위한 활동을 위한 시스템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필란트로피의 확장과 향상 그 자체에 집중하여 일했다. 특히 이것은 배분을 하는 재단, 기부자를 지원하는 것, 비영리단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치는 필란트로피의 조직(재단,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은 자선적인 목적(의미)을 가지고 인간의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즉 핵심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일을 잘 하게 도울 수 있을까?’이다.

이 일을 위한 체계적인 원칙은 비영리단체, 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미션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근본적인 가치는 모든 필란트로피는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하다는 것이다.

필란트로피의 증가와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공동과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우산을 제공한다. 이것은 넓게는 정치적 견해와 경제, 사회적 경험, 종교, 인종, 민족적 배경, 지리적 위치가 다른 재단,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커뮤니티의 작업에서 재밌는 부분 중 하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과업(워크그룹, 세미나, 위원회, 기금 제안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

중한다. 특정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이 다를 때 “필란트로피의 증가와 향상”의 일반적 가치로 돌아가라.

2. 진행 상황을 평가 하고 학습 환경을 만들어라

많은 미시간 이니셔티브(의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혁신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경험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발전했다. 그리고 유용한 프로젝트의 생성과 개선은 외부 평가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다. 평가자는 집행자(enforcer) 또는 심판자(judge)보다는 식견 있는 정보제공자(informant)로서 일하기 위해 온다. 평가팀의 멤버들은 평가 정보를 모으기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와 만나 각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논의한다. 흔히 중간과정의 수정은 평가팀의 제안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연간 평가는 프로젝트의 자문위원회와 조직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사회와 공유한다.

다수의 미시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연구는 그것들의 발전을 도왔다. 이 연구의 다수는 큰 규모의 이니셔티브의 장기 효과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된다. 예를 들어 미시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유스프로젝트의 유스그랜트메이커의 샘플링은 그들의 유스그랜트메이킹 경험이 일생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연구로 이어졌다. LTG(Learning To Give, 리닝투기브) 프로젝트는 교육 평가자들의 작업을 토대로 성장하고 변화했다.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배움(학습)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로서 바라보는 평가자들의 정보에 기반한 변화/수정에 대한 유연성으로부터 왔다.

3. 높은 수준의 성과 기준에 전념하라

4개의 인프라 조직은 그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 실행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개시하거나 옹호한다.

CMF(미시간재단협의회)는 일찍이 가족재단을 위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만들고 적용했으며, 지역재단을 위해 업무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LTG는 필란트로피를 가르치는 단위의 필요조건을 디자인하기 위한 교습과 학습의 최신 이론을 연구하고 실행했다. 존슨센터는 학부와 대학원 레벨에서 필란트로피 교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유사한 연구소들과 함께 일했다.

미시간 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Michigan Community Service Commission)는 비슷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다른 주에 모델을 제공했다. 모금전문가연합(Associate of Fundraising Professionals)은 모금분야에서 전문적인 스탠다드의 개발과 실행을 이끄는 미시간의 존 로어에 의해 가이드 되었다.

“좋은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하는 과정에 깔려있는 신념은 필란트로피 분야의 개인과 조직은 올바른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좋은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인프라 조직은 교육훈련을 고안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더 튼튼한 재단과 비영리 조직을 만들기 위한 동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 좋은 일을 달성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참여한다.

4. 모든 필란트로피는 가치 있다

미시간의 4개의 인프라 조직, 특히 CMF는 미시간주 전체에 서비스한다는 가치를 고수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유한 커뮤니티파운데이션은 작은 미시간 지역은 효과적인 능력과 규모가 없다는 것을 걱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파운데이션은 성공에 대한 촉정을 규모에서 “베스트프랙티스”로 바뀌었다. 지금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질은 사이즈가 아니라 현재 행위, 리더십, 그리고 서비스에 의해 규정된다.

미시간 인프라 조직은 다른 이들이 우려하는 것을 듣고, 주의 모든 분야에서 필란트로피를 지지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자원봉사와 필란트로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파운데이션, 유나이티드웨이, 볼런티어 센터, 서비스러닝스쿨 등은 도심뿐만 아니라 마을, 큰 도시, 시골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부자의 말을 존중해라

만약 필란트로피 섹터 그 자체의 건강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미시간의 경험에서 핵심이라면, “기부자의 희망사항을 존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어드바이저들 모두 너무 자주 그들의 가치와 편견을 기부자와의 대화에 가지고 온다. CMF는 기부자와의 대화에서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물음으로서 시작한다. CMF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기부자들이 판단하고 그들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

CMF는 항상 기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관심에 집중한다. 만약 기부자가 원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이 지역사회 또는 개인을 돕는 것이라면 CMF는 필란트로피를 통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 외부의 의견은 외부에 남는 것이다.

6. 공간을 넘어 생각해라

미시간의 주요한 이니셔티브는 크고 매우 다양한 주를 가로지른 커뮤니티에서 깊고 강한 필란트로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메트로폴리탄 도시부터 교외, 작고 중간 사이즈의 타운, 시골의 농장의 광대한 황야까지, 여긴 지역적 수준에서 촉진된 서비스로 전체 주를 서비스하는 지리적 인식이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 곳곳에 위치해 있다. 지역재단은 모든 카운티의 모든 거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러닝 기금은 주 전체에 제공된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모든 카운티에 있다.

7. 시간을 넘어 생각해라

미시간의 전체 전략 중 하나는 필란트로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며, 공식적인 체계적 자선활동은 학습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족과 종교적 기관들은 기부와 봉사의 가치와 활동을 가르쳤다. 현대에서는 특별히 미국의 민주주의의 한 중요한 분야로 지속되어야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필란트로피 커뮤니티는 의식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제도를 구축했다.

8. 필란트로피(서비스)를 위한 평생 사다리를 세우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프라의 리더들은 자주 평생 필란트로피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한다. LTG는 미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K-12) 교육 과정에서 비영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아카데미한 내용을 제공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지역 재단의 청소년 위원회(YAC)로 활동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학생들은 1년간 아메리콥스 또는 vista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캠퍼스컴팩트와 여름봉사활동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졸업 후에 지역재단, 또는 유나이티트웨이에서 제공되는 운영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의 볼런티어센터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연결하고 지지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은퇴 후, 노인이 되어서도 시니어콥스, vista, 멘토 미시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 이론가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되어라

단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미시간에서의 노력은 실용적이고, 풀뿌리적이고, 직접적이며,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적용한다. 프로젝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미시간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사기가 꺾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종종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리더들이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이유 중 하나는 큰 재단의 설립자들의 확신이다. 실수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

10. 커뮤니티 자본을 구축하고, State에 봉사해라

필란트로피 그 자체는 함께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함께 일하는 것에서 필란트로피 커뮤니티는 시민의 윤리, 관계의 네트워크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다 깊은 의미에서 커뮤니티 자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문화는 봉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오랜시간 발전된 개인적 관계를 통해 가능성을 만들었다. 미시건은 재단, 인프라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성숙한 시니어 리더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그들은 관계를 맺고 일하는 것이 능하다. 그들은 또한 젊은 전문가들과 필란트로피 영역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활발히 키워냈다.

재단의 전문가는 그들의 근무시간 외에 그들 분야에서 어드바이저로, 이사회 멤버로, 옹호자로 활발히 참여한다. 그들은 그들의 재단을 기반으로 공동의 섹터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하고, 공공정책을 증언하고, 모금 전화하는 것들 돕고, 세계의 우수한 프로그램 모델과 자원을 미시간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재단의 스텝들은 지지자(cheerleader)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미시간은 크고, 겨울 날씨가 때론 힘들지만, 미시간 필란트로피 인프라 조직의 리더들은 나타난다. 그들은 식사와 논의자리에 대면으로 미팅을 한다. 그들은 공통의 교육적인 이벤트에 함께 한다. 그들은 전화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온화하게 장난치고, 다른 가정과 이해(관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며 전문적인 친구다. 파트너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모티브, 가치, 액션에 있어 높은 신뢰가 있다.

4개의 인프라 조직의 직원과 리더는 그들의 조직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한편, 미시간주와 필란트로피 전체를 위한 더 큰 미션과 비전에 헌신한다.

한 조직에 있던 스텝은 다른 조직에 쉽게 채용된다. 그들의 가치는 일치한다. 사람들은 단지 그들 조직의 승리가 아니라 미시간주에서 필란트로피를 나누는 큰 비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의 성공을 돕는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들은 동료가 잘 할 것이라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항상 파트너와 함께 한다. 큰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숨겨진 아젠다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으며, 문제는 단순히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의(제도적인) 전쟁으로 키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좋아하며 신뢰하며 참여한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11. 부족하지 않은 풍부한 철학들을 수용해라

풍부한 철학은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반면, 부족한 철학은 사람들이 부족한 자원에서 자원을 차지하게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풍부함은 사람들이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자원은 시너지와 공유를 통해 만들어진다. 미시간 필란트로피 커뮤니티는 항상 낙관적이고 충분한 철학으로부터 운영됐다. - 돈은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고, 재능은 창의적일 수 있는 자유를 만들었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

12. 까다롭고 복잡한 모델들을 수용해라

자원봉사자나 자선 기관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구조적이고, 다면적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다. 정책, 역사, 편견, 개인적 충돌까지 한마디로 상황이 엉망인 복잡한 문제들이다.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만약 문제가 쉽고 해결이 뻔했다면 - 그 문제(빈곤, 건강, 일자리 등)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전략 계획은 지역 상황의 현실에 맞게 부딪히는 것이다.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커뮤니티는 다양한 톨로 채워진 톨박스와 함께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적용시켜왔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새로운 톨을 만들어냈다.

13. 분명하고 영감적이고 공격적인(적극적인) 목표를 세워라 : 그 목표와 만나는 지역의 혁신을 감안하여

미시간의 프로젝트는 종종 같은 특성으로 보여진다. 목표는 명료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역 상황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독창성에 달려있다.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것 그런 다음 창의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전략은 미시간의 필란트로피를 위해 주효했다. 미시간주 전체의 프로그램에 접근방식은 로컬 사람들의 신뢰와 그들의 해결을 적용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14.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다

미시간의 경험에서, 증가하고 발전하는 필란트로피는 미시간 주단위에서 다뤄졌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미시간을 위한 인프라를 세우는데 집중했다. 미시간 주의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은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역재단, 지역의 유나이티드웨이, 지역 학교를 위한 서비스러닝 기금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어

난다.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는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면서 시작된다.

15. 정부와 파트너가 되어라

CMF는 정책에 대응하며 만들어졌다. 미시간주 비영리연합은 매우 다양한 비영리섹터의 공동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존슨센터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전통을 알리고 믿을 수 있고 공공 정책 결정에 있어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와의 협업-공공정책 결정자들에게 비영리섹터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 섹터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이슈를 옹호하는 것은 미시간주의 시민을 위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달성한 중요한 경험이다.

16. 좋은 파트너가 되어라

협업에서 각 파트너의 욕구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만약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방법이 파트너 중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술은 자기를 것 뿐만 아니라 각 파트너 조직의 필요를 듣고 그들의 이해와 제약을 다루는 것을 돕는 능력이다.

2) 서번트리더십의 9가지 습관

1) 첫째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다

미시간이 지역사회구축에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필란트로피의 분야에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해 온 것이었다. 미시간의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개인의 재능을 멘토하며, 미시간에 효과적인 구성요소로서 동료와 관계를 맺는다. 각 개인이 공동의 비전에 강한 관계를 맺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 개인적인 노트(감사카드)를 쓰다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짧지만 진심의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3) 믿음을 공유하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모험에서 한 부분이 되는 것, 목표를 성취하는 감동을 공유하는 것, 이기는 팀의 멤버가 되는 것을 원했다. 미시간의 필란트로피 리더들은 항상 성공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

4) 연락을 유지하다

관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그 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Facebook, LinkedIn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라. 개별적인 사생활과는 구분되어야하지만, 공유하면 좋은 아이템들과 개인적이지만 특별한 경험(특별한 휴가, 좋은 책, 사진과 같은)들을 올려라.

5) 존재를 드러내다

만날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사무실로 가라. 면대면으로 종종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 프로젝트나 위원회로 함께 일하기 위한 기회를 살펴보라.

- 미팅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되라.
- 사람들과 인사와고 대화하라.
- 미팅에 있을 때 문자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가지 마라. 미팅 안에만 있어라.
- 은퇴 파티에 참석하라. 새로운 사람과 이사들을 만나는 환영회에 가라.

6) 봉사하고 나누다

- 좋은 자원이 있을 때 파트너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사용할 수 있는 미팅룸,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펜과 종이를 빌려주는 등 도움 기회를 살펴라.
-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라.
-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주목하라. 커피나 쿠키를 대접하고, 코트를 걸어주는 등의 일들..

7) 좋은 뜻으로 여기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삶은 너무 복잡하다.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을 때에도 파트너 기관이나 동료가 좋은 뜻을 가졌다고 생각하라.

8)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돼주다

9)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수정하다. 동료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시스템이고 관계여서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고 파트너에게 알려 주고 즉시 수정하면 된다. 일이 잘못됐을 경우 놀라지 않도록 정보를 줄 때 신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잘 구축될 수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https://www.learningtogive.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3일	방문면담자	Betsy Peterson / Director

1. 설립배경 및 목표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는 1997년 CMF(미시간재단협의회)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필란트로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K-12 필란트로피 교육 프로그램이다.

필란트로피 교육의 필요성과 스탠다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서비스러닝 프로젝트 아이디어, 프로젝트 기금 정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로 프로그램이 발전, 정착하였다.

1) 커리큘럼 개발 및 배포

- LTG의 첫 번째 목표는 필란트로피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학자, 교사, 필란트로피스트들이 스탠다드를 만들고 스탠다드 안에 학년별 버전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하기 시작함.

2) 교사 양성

- 두 번째 목표는 교사들이 교과 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교사연수(Fisher training)를 진행하여 서비스러닝의 각 단계별 활동(문제찾기부터 모금까지 모든 활동)을 교사가 직접 해보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 것인가 연구함. 이를 통해 교사들이 현재 1만 7천여개 커리큘럼을 개발함.

3) 웹사이트/교사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 현재 LTG는 웹사이트와 교사네트워크를 통해 필란트로피 교육이 공교육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LTG 담당 스텝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사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교사연수 또는 LEAGUE를 통해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이 웹사이트의 교안을 활용하여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있음.

* LTG는 현재 1명의 스텝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LTG의 웹사이트에 매년 매년 200만명이 방문하여 교안 등을 활용하고 있음.

2. 필란트로피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자격조건으로 가지고 있지만 일부 학교만이 필란트로피의 방법과 활동을 가르치고 있다.

1) 학생들이 기부, 봉사활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

- 연구 결과, 필란트로피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고, 필란트로피 롤 모델 행동을 많이 접하게 될수록 기부와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LTG의 교안을 통해 학교에서 필란트로피를 주제로 교육을 할 경우, 학생들은 더 자선적 행위와 신념,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학생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힘과 책임감을 인식

- 필란트로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현재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시민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함.

3)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

- 결국, 필란트로피 교육은 필란트로피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필란트로피의 뜻이 ‘시간, 재능, 물질을 공익을 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함.

3. LTG의 필란트로피 교육 스탠다드

1997년 교사, 교육학자, 필란트로피스트들이 함께 학생들이 필란트로피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봉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커리큘럼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LTG의 교안은 이 필란트로피 커리큘럼 스탠다드에 기반하여 개발된다.

Learning to Give International Philanthropy Curriculum Standards:

Philanthropy Theme

I: Definitions of Philanthropy

II: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III: Philanthropy and the Individual

IV: Volunteerism and Service

중심개념	교육내용
필란트로피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란트로피의 정의 • 정부, 기업의 역할과 필란트로피 • 비영리영역에 있는 단체의 이름과 종류 • 비영리단체의 운영특징 • 재단의 역할 • 필란트로피에서 가족의 역할
필란트로피와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위한 시민 개인의 행동 • 다양한 문화 • 필란트로피와 경제 • 필란트로피와 지리 • 필란트로피와 정부 • 필란트로피와 역사 • 시민참여 기술
필란트로피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란트로피에 대한 이론, 개념에 대한 설명 • 비영리분야에서의 경력 기회
자원봉사와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 • 봉사와 학습 • 봉사하기 • 사적 자원모금하기 • 봉사의 경험을 배움으로 통합하기

LTG 웹사이트에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필란트로피 커리큘럼 스탠다드

■ LTG 미니연수

〈연수 진행 내용〉

1. 홈리스 보호시설 방문
2. 교사 패널 미팅: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필란트로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담
3. 시민사회에서 필란트로피의 개념과 역할/학교에서 필란트로피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 / 서비스러닝의 개념
4. LTG 웹사이트와 교안 활용방법
5. LTG의 역사와 필란트로피 스탠다드
6. 한국의 필란트로피(나눔)와 다음 스텝 계획해보기

※ 현재 LTG에서는 직접 교사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팀의 요청에 따라 기획되어 진행되었음(교사연수는 LEAGUE에서 진행)

1. 홈리스 보호시설 방문

- 교사연수는 [이론교육]-[계획 및 실행]-[수업계획서작성]-[피드백]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계획 및 실행]은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입장이 되어 직접 비영리단체를 방문하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 홈리스 보호시설을 방문한 후,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둥글게 서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기’,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보고 싶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와 같이 간단 하지만 꼭 담아가야 할 메시지를 생각하고, 같은 활동 속에서 다른 경험(소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방문한 홈리스 보호시설 소개〉

- 4층 건물
- 1층 - 홈리스 식사장소(아침, 저녁), 저렴한 가격에 (0~2\$) 제공, 점심은 다른 기관에서 무료 식사제공, 자원봉사자가 저녁에 아침식사 준비, 식사에 추가 비용 50센트 지불하면 다른 메뉴(오트밀 등) 추가 가능. 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주는 대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알게 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처럼 적응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층 - 위생서비스(샤워), 세탁, 락커 이용, 우편물 수령 등 기초 생활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등록 등 행정, 구직,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
- 3층 - 18세 이상 여성 노숙자 쉼터
- 직업훈련코스 - 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노숙자가 하게 되면 바우처 제공(청소, 설거지 등), 바우처를 통해 Degage에 있는 위생 서비스, 숙식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지역 주변의 연계된 기관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전문적 직업훈련은 교회 등 다른 기관에 연결해 줌.

2. 교사들과의 만남

- 실제 학교에서 LTG의 교안을 참고하여 서비스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사 4명과 교사들의 프로젝트 진행을 돕는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 1명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Kathy Robert : Battle Creek 중학교 교사

- 프로젝트 : 자기 인생 에세이 작성 수업

- 자기 인생 이야기를 책(그림, 글)으로 만들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설명하고 주고 왔다. 7학년(중1)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용감하게 표현하고, 동생들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재밌어했다. 이 때 북커버가 필요해서 기부 제안도 했었다. 참여도와 완성도가 높으며,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학교 출석률이 성과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 인데, 이 활동을 할 때 동생들이 책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동기부여되어 출석률이 높았다.

■ Lea Sevigny : Forest Hill 중학교 교사

- 프로젝트 : 학생들이 비영리단체의 목소리가 되어 주는 오피니언 프로젝트

- 라디오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홍보 활동을 했다. 기관의 필요를 창의적으로 알렸으며, 그 활동의 영향력이 컸다. 캠페인 홍보 외에도 필요한 재료를 LTG에 기부요청을 하여 직접 만들고, 신생아 부모들에게 전달 행사까지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함께 했다.

■ Kim Jenerou : Grand Rapids 고등학교 과학 교사

- 프로젝트 : 지구의 날 프로젝트

- 외부 손님이 많은 학교이나 정원 상태가 심하게 좋지 않아, 아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했다. 고등학생들이 주변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그룹을 나눠서 활동(고등학생이 멘토 역할)했다. 과학 과목에서 '토양'을 주제로 하는 커리큘럼과 연결하는 활동 등 진행했다. 4개 프로젝트- 식물 심기, 주변 수리, 쓰레기 줍기, 쓰레기통 비우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배우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그룹별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고, 아이들끼리 창의적 활동 제안하며 서로 배우기도 했다. 또한 과학 과목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상호작용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 Stacia Gill : Grand Rapids 고등학교 영어교사

- 프로젝트 : '빈곤의 날' 프로젝트

- 빈곤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해보니, 노숙자들이 빈곤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 내 빈곤 관련 기관들을 조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내용과 위치 등을 설명하는 브로셔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했다. 기금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발표하여 관련 정보를 알리고, 빈곤 관련 토론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팀을 나눠서 직접 도와주는 곳, 급식소, 가족 중의 한 명이 노숙자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방문했다. 돌아와서 어떤 학생은 긍정적 반응을 이야기 하고, 어떤 학생은 느끼기에 짧았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빈곤을 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실제 지역 문제에 대해 경험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다. 지원금을

통해 한 개 기관 당 125 달러 예산 확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기관의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예산 결정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외부에 나가서 조사, 기관방문, 지역사회에서 해당 이슈 프리젠테이션, 예산작성 등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그룹이 크다 보니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 Megan Lendman :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

- 아메리콧¹⁾으로 교사와 기관사이를 연결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

- 각 학년 층의 아이들이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므로 그에 맞게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서비스 러닝을 처음 시작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초기 시작하는 교사에게 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필요한 문제들이 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떡이 주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련 기관 방문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유기견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메리콧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방과 후 또는 졸업 후에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무학년제(mixed-status, mixed-grade) 프로젝트로 학년이 섞여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독려하고 서비스 러닝에 대한 지혜 공유하는 게 좋았다.

질의응답

Q '빈곤의 날'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집행하는 참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나?

A 돈이 관련되니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온라인상으로 조사할 때보다 실제 기관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필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팀 같은 경우 노숙자 가족을 방문하면서 그들에 필요한 것들 중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도 했다. 펀드(기금)에 대해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가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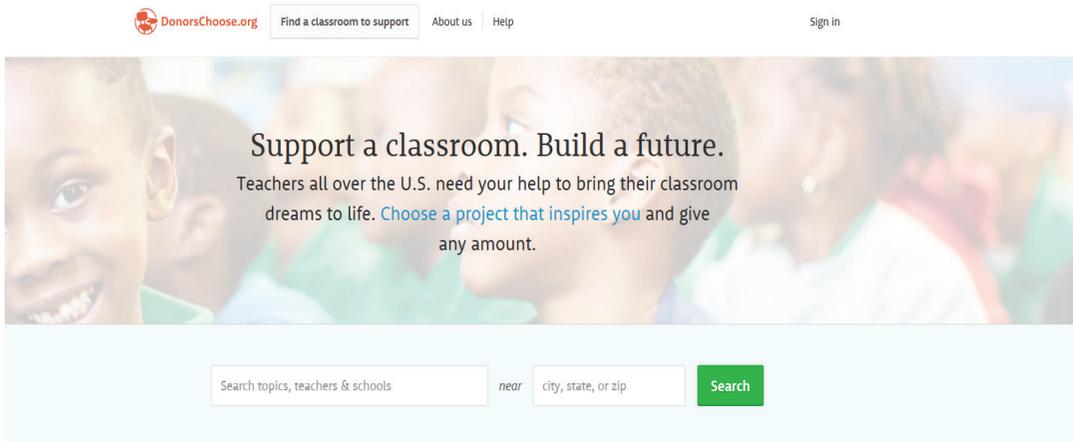
Q 모금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A LTG 레슨 플랜 중 펀드 리스트를 이용했다. 예산은 학생들이랑 같이 계획했다.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펀딩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LTG 레슨 플랜에 올라온 펀딩 프로젝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학생들이 돈을 모금 하는 게 아니라 지원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주는 펀딩 정보 지속적 확인한다.

1)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메리콧이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으로써 서비스러닝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선배)로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러닝프로젝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 **지역재단**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특정 주제(환경 등)를 주고 펀딩 제안 등을 연결
- **LTG**는 서비스러닝프로젝트에 지원
- **United Way**에서 6개 영역에 지원하는 펀딩에도 연결
- **Donorchoose.org** 사이트에 교사들이 실제로 기부자에게 제안서 작성해서 올림. 과목별, 주제별, 학년별, 금액별 등 다양한 분류의 펀딩이 있음. 특정 프로젝트 이름, 어디에 기부금이 쓰이는지, 구체적 기부 요청 목록 제공, 프로젝트 구체적 활동 등을 작성. 교사들만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으며,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코멘트 작성 가능



Donorchoose.org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받을 수 있다.

Q 청소년들의 참여가 일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A 고등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30시간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을 통해 기관을 알게 되고 봉사활동 진행 기회를 얻게 되어 장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기관의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다 보니 서로의 연결고리가 깊어진다. 실제로 졸업생 중에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Q 의무적인 자원봉사시간이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미국은 어떤지?

A 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직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한 서비스러닝프로젝트 경험을 나누주었다.

3. LTG 활동 소개

1) 미국의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 진행방식

- 5장의 에세이를 모둠별로 각각 1장씩 나눠서 읽고 나서 서로 토론. 티칭스킬 중 '직소퍼즐' 형태로, 5장의 에세이를 각 모둠별로 1장씩 나눠서 읽고 다른 모둠에게 읽었던 내용을 요약 하여 설명해준 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
- 각 장의 내용을 서로 나눈 후, 미국의 필란트로피와 한국의 나눔에 대한 토론 진행(미국에서만 해당하는 것, 한국에서만 해당하는 것, 둘다 포함하는 것)

〈에세이 내용〉

- 1장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 어원과 다양한 형태의 필란트로피 예시
- 2장 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가? : 개인적 동기로부터 출발. 그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시절 성장과정 (가족, 학교, 동료, 종교활동, 청소년 모임, 미디어) 등의 기부동기 이유
- 3장 사회의 3가지 섹터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정부기관, 기업, 비영리기관의 목적
- 4장 비영리섹터의 특징 : 비영리섹터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
- 5장 비영리섹터의 유형(The Landscape of the Sector) : 비영리 섹터의 7가지 유형

- 질의응답 및 토론내용 요약 -

Q 에세이 2장에서 고등학교 과목 중에 'Philanthropy 101'이 무엇인가?

A 대학에 가면 Philanthropy 교양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Philanthropy 101'이 시작(기초)코스로 고등학교 때 선택과목(여름학기)으로 배운다.

Q 에세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미국의 교사들도 비영리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단체 관련 직소퍼즐 수업은 교사연수 과정 중 하나이다.

Q 청소년들에게 필란트로피에 대해서 쉽게 가르치기 쉬운 방법이 있는가?

A 청소년들한테 필란트로피에 대해 가르치는 쉬운 방법으로 간단한 율동이 있다.
"Philanthropy is giving of your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s"

Q 미국의 나눔(필란트로피)과 한국에서의 나눔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A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래야 필란트로피 영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의 영역(복지)을 기부로 대체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 '나눔'이면 자원봉사/기부로 이해, 미국에서는 옹호(Advocacy)의 개념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2) 왜 필란트로피를 가르쳐야 하는가?

필란트로피 교육을 했을 때 변화를 아래와 같이 발견할 수 있다.

-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자선행동, 태도, 신념의 변화
-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책임감
- 학습에 대한 더 깊은 목적 -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스킬을 배우는 것
- 학교에서 학습동기 부여(출석율)
- 학교 문화/환경 증진
- 지역사회가 학생을 '자원(자산)'으로 생각
- 평생 동안의 필란트로피 습관 학습&실행
- 직업군으로 발견 가능성
- 비판적 사고와 리더십 향상

Why Philanthropy Education?

- ♥ Students exhibit **charitabl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 ♥ Students feel **responsible** for serving
- ♥ Gives **deeper purpose for learning** – “I have skills to make a better world.”
- ♥ Increases student **motivation to learn** in school
- ♥ Improves **school culture**
- ♥ Community sees **youth as assets**, people who care
- ♥ Learn and practice habits of **life-long philanthropy**
- ♥ Broadens **career opportunities**
- ♥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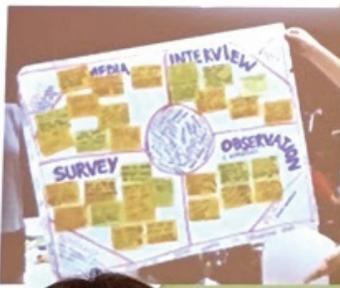


3) 서비스와 서비스러닝(Service and Service Learning)의 개념

서비스는 행동(봉사)하는 것이라면, 서비스러닝은 봉사활동을 할 수업 과목과 지역사회에 활용/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이 포함된 것이다.

〈Service-Learning Process〉

- 1단계 Investigation : 첫 번째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찾는 방법 중 'Blue Sky' 기법이 있다. 이상적인 것을 꿈꿨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의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문제를 보게 하고 현재 문제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지역사회 리소스를 찾아본다. 세 번째에는 지역사회 문제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검색, 지역주민 등 다양한 대상 인터뷰, 서베이, 관찰 등을 한다.



Investigation

Learn and narrow focus:

- ♥ talents and interests
- ♥ community resources
- ♥ issues we care about
 - ♥ What is needed?
 - ♥ facts and data.

- 2단계 Preparation : 발견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면 2단계에는 특정 주제로 좁히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스킬을 알아보고,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본다(제안서 작성 등). 이 때, 학생들 연령대와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교사의 참여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



Preparation

Work collaboratively to learn more and make a specific workable plan to address the identified needs.

- 3단계 Action : 실천단계로 4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직접참여, 간접참여, 옹호하기(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등), 리서치(문제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고, 옹호하기에 활용)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 직접 참여 형태가 아닌 리서치나 간접참여 등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울 수 있다.

예) 지역의 수질문제에 있어 학교 과학수업에서 실제 그 지역의 수질에 얼마나 많은 화학요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도 서비스러닝에서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Advocacy

Action

Together we give Time, Talent, or Treasure and take action for the Common Good.

Direct	Indirect	Advocacy	Research
Direct Action: https://www.youtube.com/watch?v=dxjs20CjIFM	Learn reading techniques and read with someone in a younger grade.	Hold a book drive and share books with a local nonprofit that distributes to children in need.	Learn literacy facts and share learning with people who can make a difference.
			Take a survey to quantify how much time third graders spend reading in their free time.

- 4단계 Reflection : 배운 것을 견고히 하는 단계이다. 활동 종료 후 피드백 활동을 통해 경험을 새겨주는 활동이다. 활동을 통해 ① 무엇을 이루기 원하나, ② 어떻게 하길 원하나(태도·참여도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다양한 방법(글쓰기, 그림, 몸으로 표현하는 등)으로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Reflection

Solidify learning using a variety of reflection activities

Students reflect on the process before, during, and after an action stage. Prompt students to reflect on some of the following questions:

- ♥ What do we hope to accomplish?
- ♥ How are we doing?

- 5단계 Demonstration : 아이들이 활동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지 받는 단계이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해냈어?'라는 타인이 지지하는 한 마디가 자존감을 높이고,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



Demonstration

Students share with an audience what they did, what they learned, and how they impacted the common good.

〈교육 예시〉

* **Blue Sky** :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상상하기

- 지역사회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1단계 Investigation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그림책(Through the Cracks)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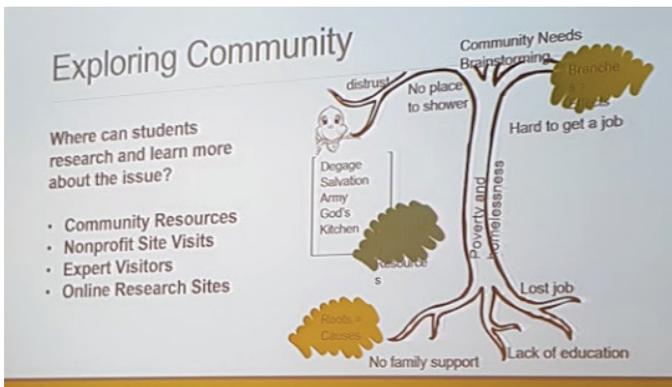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 주고, 그림책의 그림에서 잘못된 것, 이상한 것 찾아서 이야기나눈다. 예를 들어, 그림책에서 시멘트 바닥 학교에 잔디가 없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한다.

2) 청사진 그리기

파란 종이를 주고 이상적인 지역사회 그림을 그려보게 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해 보게 한다. 모든 그림을 붙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공유한다.

* **Exploring Community** : 커뮤니티 탐색

-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을 위한 2단계 Preparation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 빈곤

- 뿌리(근본원인) : 가족의 보호 부재, 교육 기회 부족
- 줄기(사회에 드러나는 문제) : 빈곤 - 해당 부문에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음.
- 가지(그로 인해 나타나는 세부문제/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지역사회 자원_비영리단체) : 사위할 곳이 없고, 구직어려움/ 노숙자쉼터 등



4) 필란트로피 참여 단계(Levels of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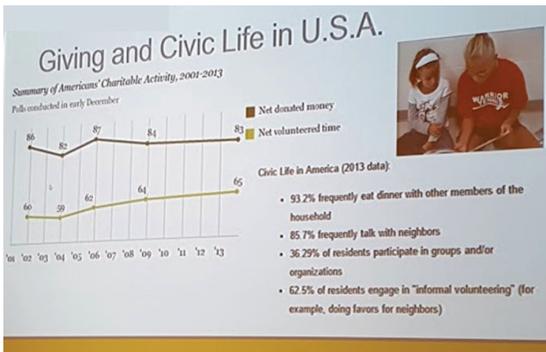
필란트로피에 참여하는 단계(수준)가 있다. 개인적 참여(개인의 친절, 배려 수준)에서 사회 참여(이벤트, 캠페인 계획 및 참여),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고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LITG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처음 쓰레기 줍기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참여에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근육'을 키워 주려고 한다.



<참고> Giving and Civic Life in USA(미국의 기부/자원봉사 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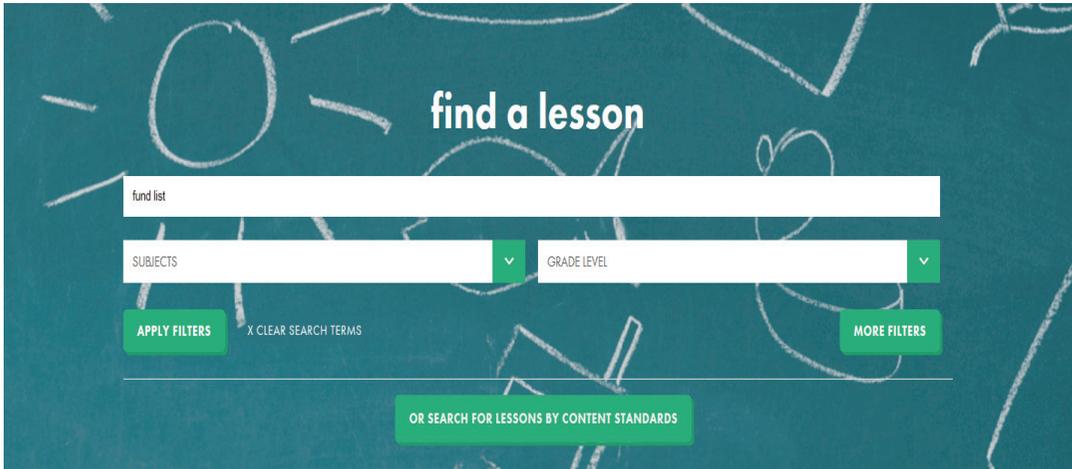
- 미국 시민의 83% 기부,
65% 자원봉사 참여



* 재밌는 수치는 93%가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는 것을 필란트로피로 봄. 왜냐하면 워낙에 바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가치,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함.

4. LTG 교안(웹사이트 소개)

* 매년 200만명이 LTG 웹사이트 방문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교사와 파트너로 함께 하는 것이 목표이다. 초반 활동 시엔 무조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활동이었는데,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LTG 웹사이트(<http://www.learningtogive.org/>)에서 필란트로피 교육 교안을 주제/과목/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다.

- More Lessons & Resources 페이지 : 이슈에 맞춰 할 수 있는 레슨 플랜이 있음(예) 마틴 루터킹 공휴일-시민의 권리).
 - 특정 이슈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음. 학년/과목 필터지정 검색, 한번 또는 한 학기 내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Online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페이지 : 온라인에서 연수 받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음. 수료증은 교사 연수 의무 활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Trending 페이지 : 다양한 관련 아티클을 볼 수 있음.

5. 질의응답

Q 많은 교안들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A 현직 교사들에게 개발비용을 주고, 그들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개발하면 디렉터인 베시가 검토를 하고,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 웹사이트에 공개를 한다. 이 때 공개된 교안은 다시 이것을 활용한 교사들의 코멘트로 수정,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Katherine Roberts

Grade Level: 7

School: Battle Creek Middle School
MI
United States



Why I want my students to be involved in volunteering and service, etc.

I grew up in a small town funeral home. Our house was always open to the grieving families, and this taught me how to be flexible and give to others. When I learned about Philanthropy Education, it was the bridge that I'd been searching for to connect my students' education with purpose and real-life situations.

Tips for infusing philanthropy...

Using Philanthropy Education has become "how we do things" in my classroom. It's a philosophy of teaching that addresses the whole student and reaps many benefits and rewards. It has revolutionized my teaching and ability to impact my students. I have been able to make connections with students that I never dreamed were possible. My students know I care and I've demonstrated this through introducing them to something (service) that will help build their confidence and esteem. I don't think we'll ever know the full impact of this, but I can tell that it's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 culture of my classroom.

I taught this LTG lesson

LTG 웹사이트에서 교안을 개발한 교사들의 경험담과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Favorite ice cream:

Mint Chocolate Chip

Favorite quote:

"It's nice to be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to be nice!"

Hobbies:

Reading and playing with my grandchildren

Personal volunteer area of interest:

Appalachia Service Project

Q LTG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A 다음 스텝은 실제 교육을 하는 것보다 교사들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타 지역/나라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을 하려고 한다.

Q 미국은 공교육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이 잘 이뤄지는 편인지,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A 미국의 경우, 교사가 직접 교육안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LTG의 교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필란트로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지만, 바빠서 못한다는 교사가 많다. 조금만 노력하면 필란트로피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LTG의 교안들은 교과와 필란트로피를 연결하여 만들어졌다) 교육시수나 과정에 문제될 건 없으며,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아메리콥스)와 같은 지원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http://www.grfoundation.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3일	방문면담자	Cris Kutzli / Program Officer

1. 연혁 및 미션

- 1922년에 설립된 미시간주의 첫 번째 지역재단으로 YAC(Youth Advisory Committee)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The Community Garden

성장, 번영, 이웃, 건강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랜드래피즈 지역재단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로비에 전시되어 있다.

2. 그랜드래피즈 지역재단의 YAC 활동2)

1) 멤버구성

그랜드래피즈의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청소년(고등학생)들로 멤버가 구성되어 있다. 팀빌딩을 통해 서로 알아가며, 거의 4년 내내 활동하기 때문에 처음엔 서로 모르지만 점차 끈끈한 사이가 된다.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으며, 사회성도 많이 기를 수 있다.

2)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YAC 운영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랜드래피즈 지역재단의 YAC는 베스트프랙티스로 꼽히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며, 담당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했다.

2)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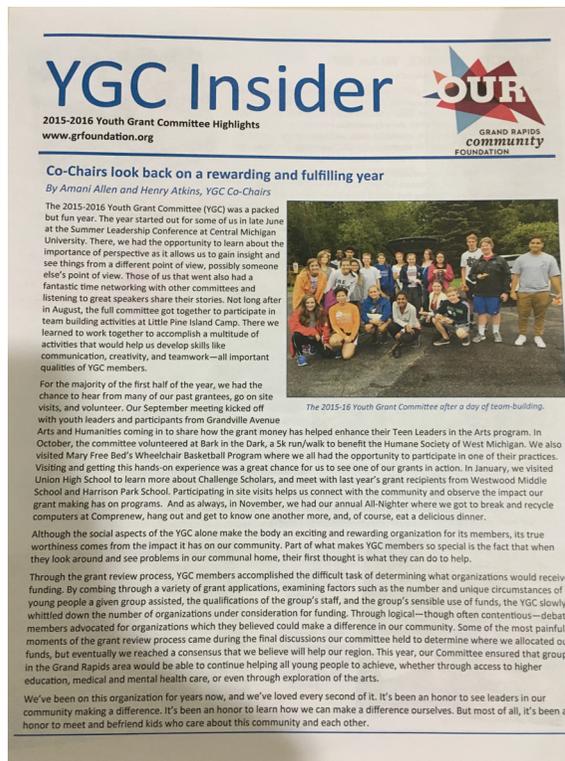
① 지역사회 분석

지역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사를 한다. 최근에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한 기구 구입에 기금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YAC 멤버들이 장애인 청소년을 인터뷰를 하여 실제 욕구를 파악하고 배분 하였다.

지역사회 분석은 지역주민(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여 페이퍼로 작성한다. YAC 멤버들은 7-800장의 페이퍼를 일일이 확인하며 배분을 결정한다. 비영리단체에서 지역사회 이슈에 따라, 이들에게 먼저 펀드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② 배분

YAC 멤버들은 한 달에 한번 만나서 1시간~1시간30분정도 배분 회의를 한다. 꼼꼼히 심사를 해서 기금을 받기가 까다롭다. 이번엔 42개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6개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총 450만원정도이다. 청소년들이 YAC을 통해 큰 규모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실제 살아가는 사회에서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활동을 통해 직업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되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YGC Insider 

2015-2016 Youth Grant Committee Highlights
www.grfoundation.org

Co-Chairs look back on a rewarding and fulfilling year
By Amari Allen and Henry Atkins, YGC Co-Chairs

The 2015-2016 Youth Grant Committee (YGC) was a packed but fun year. The year started out for some of us in late June at the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at Central Michigan University. There, w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 as it allows us to gain insight and see thing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possibly someone else's point of view. Those of us that went also had a fantastic time networking with other committees and listening to great speakers share their stories. Not long after in August, the full committee got together to participate in team building activities at Little Pine Island Camp. There we learned to work together to accomplish a multitude of activities that would help us develop skills like communication, creativity, and teamwork—all important qualities of YGC members.



The 2015-16 Youth Grant Committee after a day of team-building.

For the majority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we had the chance to hear from many of our past grantees, go on site visits, and volunteer. Our September meeting kicked off with youth leaders and participants from Grandville Avenue Arts and Humanities coming in to share how the grant money has helped enhance their Teen Leaders in the Arts program. In October, the committee volunteered at Bark in the Dark, a 5k run/walk to benefit the Humane Society of West Michigan. We also visited Mary Free Bed's Wheelchair Basketball Program where we all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one of their practices. Visiting and getting this hands-on experience was a great chance for us to see one of our grants in action. In January, we visited Union High School to learn more about Challenging Scholars, and meet with last year's grant recipients from Westwood Middle School and Harrison Park School. Participating in site visits helps us connect with the community and observe the impact our grant making has on programs. And as always, in November, we had our annual All-Nighter where we got to break and recycle computers at Comprenew, hang out and get to know one another more, and, of course, eat a delicious dinner.

Although the social aspects of the YGC alone make the body an exciting and rewarding organization for its members, its true worthiness comes from the impact it has on our community. Part of what makes YGC members so special is the fact that when they look around and see problems in our communal home, their first thought is what they can do to help.

Through the grant review process, YGC members accomplished the difficult task of determining what organizations would receive funding. By combing through a variety of grant applications, examining factors such as the number and unique circumstances of young people a given group assisted, the qualifications of the group's staff, and the group's sensible use of funds, the YGC slowly whittled dow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under consideration for funding. Through logical—though often contentious—debate, members advocated for organizations which they believed could make a difference in our community. Some of the most painful moments of the grant review process came during the final discussions our committee held to determine where we allocated our funds, but eventually we reached a consensus that we believe will help our region. This year, our Committee ensured that groups in the Grand Rapids area would be able to continue helping all young people to achieve, whether through access to higher education, medical and mental health care, or even through exploration of the arts.

We've been on this organization for years now, and we've loved every second of it. It's been an honor to see leaders in our community making a difference. It's been an honor to learn how we can make a difference ourselves. But most of all, it's been an honor to meet and befriend kids who care about this community and each other.

그랜드래피즈 지역재단의 YAC 활동을 소개하는 브로셔
YGC(Youth Grantmaking Committee)와 YAC(Youth Advisory Committee)와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YAC로 통일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3. 질의응답

Q 지역사회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우리 지역사회이슈, 현재 느끼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역사회의 동료, 이웃, 친구들에게 질문한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질문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게 된다.

Q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A 지원서가 있다. 리더들이 모여 멤버 자격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학업능력이 아니라, 열정, 지역사회에 헌신, 열린 마음, 다양성 존중, 다른 사람의 의견 수용, 책임감, 공동체 전체의 의견 반영과 같은 것을 보길 원한다.

Q 위의 멤버 선출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A 지원서를 받아서, 아이들이 직접 지원자를 뽑는다. YAC 멤버 모두가 지원자를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 앞에서 열거한 조건들을 확인한다. 많은 시간이 걸려도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종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Q 학생들이 YAC에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수동적이거나, 이면의 목적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미국도 대학의 스펙을 위해 부모가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보냈다가도 진짜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잘 보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어른이 믿는다. 이때 기관 담당자(어른)가 할 일은 피자를 갖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한다.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건 생각해 봤니?'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

Q 초기에 청소년들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A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짤 때도 있는데 그냥 놔둔다. 실패도,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린다. 실제로 복잡한 문제들을 가진 활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것을 끝내고 '이 활동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서부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하나?' 등등의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배움의 과정이고, 보호된 환경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키워줄 수 있는 것이다.

Q 아이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 회의를 한다는데, 한 달에 한 번 1시간~1시간 30분이란 시간이 적지 않나 그 외의 활동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활동을 할 때 어찌 극복 하는지?

A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 공식적인 회의는 배분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 이외의 활동으로는 팀빌딩(놀이)도 하고, 배분과 상관없는 단순 자원봉사활동도 한다. 하루 종일 같이 영화보고, 게임하고, 먹고 놀고, 여름캠프도 참여한다. 이렇게 모이다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10명 정도 리더십 그룹은 한 달의 한번 미팅 준비, 문제점 논의,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모임이 있다.

Q 이 활동의 즐거움을 심어주기 위해 하루 종일 놀고 하는 활동을 하는지?

A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힘들어 할 때도 있다. 여름 캠프는 멤버 중에 8명 정도 참여한다. 아이들끼리 지낼 수 있는 기간이 흔치 않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다.

Q 팀 구성할 때 인원 제한이 있는가?

A 약 30명(최대 32명)으로 그 이상일 경우 관리가 어렵다. 새로 뽑는 학생 수는 졸업한 학생 수에 맞춰 선발한다.

Q 30명 중에 별도의 그룹을 나누어 활동하는 것이 있는지?

A 3개의 작은 그룹이 있다. 수많은 제안서를 나눠 보기 위해 그룹을 나눈 거지, 별도로 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Q YAC 활동의 목표 중에 모금도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 모금을 하는지?

A 목표 중에 모금이 있지만, 켈로그 지원금(청소년 기금)이 워낙 많아 배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기도 한다. 운이 좋아서 이런 고민을 한다. 특별한 경우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YAC 활동 경험담

홀랜드/질랜드 지역재단(Holland/Zeeland Community Foundation)의 CEO인 마이크(Mike Goorhouse)를 만나 청소년기의 YAC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들어보았다.



Mike Goorhouse, Community Foundation Holland/Zeeland Area CEO
청소년기의 YAC 활동이 발판이 되어 현재 지역재단의 대표가 되었다.

다양한 청소년(또래)와의 만남

14살에 YAC에 참여했다. 홀랜드/질랜드 지역재단 YAC 멤버의 초청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필란트로피, 기부에 대해 잘 몰랐고 그냥 좋아서 시작했다.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할 경험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활동하다보니, 학교끼리 경쟁인 학교 친구도 만났다. 익숙했던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영향력 있었다.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마치 내가 학교의 대표처럼 행동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이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배분심사를 통한 의사결정 스킬 향상

우리는 80,000달러 규모로 1년에 두 번 배분 했다. 제안서를 받아서 이야기 하고 평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부심을 느꼈다. 같은 제안서인데 다른 점수를 매겨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짜 청소년의 삶을 바꿀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몇 개의 프로그램에 큰 돈을 오랫동안 줄 것인가? 아니면 많은 프로그램에 조금씩이라도 줄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언제나 줄 수 있는 돈 보다 많은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이 어려웠다. 우리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새롭기도 했다. 이런 결정을 통해 좀 더 크고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는 결정을 해야 하다 보니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지역사회/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

제안서를 보면서 지역사회의 수많은 비영리기관들을 알게 되었다. 비영리기관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YAC 활동하면서 비영리와 사랑에 빠졌다. 비영리기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보면서 비영리기관의 영향력과 발전가능성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것이 좋아 이 분야에 일하게 되었다.

함께 했던 YAC 멤버들 중에 나처럼 비영리 종사자, 지역재단 대표도 있지만, 어느 직종에 있던 해당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지역사회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고,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다른 영역에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YAC을 통해 성장해서 그렇다고 본다.

결정적으로 지역재단의 디렉터가 실제 이사회에 초청하여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안건이 통과되는 것도 보게 되었다.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른들이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믿어주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어른 리더십의 회의,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

처음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는 발언권은 있었지만 투표권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2명의 YAC멤버가 함께 하는데, 한 명(선배)은 투표권 있고 한 명(후배-졸업하면 올라감)은 참여하여 배우고 있다. 처음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 어른들이 우려했던 점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액 모금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잠재기부자에게 고액 기부 요청 미팅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2년 정도 10-15번 정도 고액 모금 미팅을 갖게 되어,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요청 기술을 점점 익히고, 잠재기부자가 어른보다 청소년인 나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가 한 기관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모금 하게 되었다.

직업으로서의 기회

대학에 가서 직업에 대해 고민할 때, CMF의 인턴십으로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인턴십을 마치고 대학 때 CMF에서 파트타임에서 일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아무 생각없이 YAC에 왔고 인턴십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필란트로피, 기빙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알아버렸다. 그래서 이쪽 분야 일을 하겠다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하고 홀랜드/질랜드 지역 재단에서 대표가 은퇴할 때까지 2년간 훈련을 받고 바로 대표로 일하게 됐다.

어른들의 신뢰가 만든 변화

YAC, 이사회 참여, 모금 요청 기회, 파트타임, 풀타임의 모든 기회와 순간이 어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고, 이런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작은 기회에서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소년을 믿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들에게 실제 결정의 기회를 주고, 믿어 주려는 의지만 있어도 다른 세상, 다른 인생을 만들 것이다.

기관명		홈페이지	www.michiganfoundations.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4일	방문면담자	Robert S. Collier / President

1. 연혁·설립배경·조직구성

1) CMF란?

CMF(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 미시간 재단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란트로피가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내도록 연결해주고 지원하는 커뮤니티이다.

미시간주 필란트로피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켈로그 재단에 제안하여 YAC 활동 기획과 기금을 마련하고, 컨퍼런스(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와 같은 YAC의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필란트로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안을 개발하고 나누는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를 만들었다.

2) CMF의 설립배경과 연혁

1969년도에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모든 돈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켈로그재단, 다우재단, 크리스거재단, 칼라마주재단’을 초청하였고, 정부와 함께 민간영역에서의 필란트로피를 옹호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CMF가 설립되었다.

- 1972년 - 미시간 주 내 켈로그재단, 다우재단, 크리스거재단, 칼라마주재단이 정부방침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고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운영 전반에 걸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트워킹의 중요함을 깨닫게 됨.
- 1974년 - ‘The Conference of Michigan Foundations’의 개최 (CMF의 전신이자 모태)
- 1975년 - 현재의 CMF를 설립함.

2. 주요 역할

미시간주의 필란트로피(기부자, 재단-개인, 기업, 가족, 기역재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1) 개인의 기부참여를 독려

- 미시간주 기부의 개인 비중의 80% 차지함.
- 정부의 세금감면을 통해서 비영리 섹터가 성장함.
: 2017년, 비영리섹터의 세금감면이 시작된지 100년이 됨.
: 미시건에는 4,500개의 비영리가 있고 미시건 인구의10%가 비영리에 종사
- * 미국은 72세 이상 연금혜택을 받는데 비영리에 기부를 많이 하는 "개인"에게 연금을 많이 주는 것을 논의 중.
개인의 기부에 따른 연금 혜택이 실현되면 앞으로 개인기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기부 독려가 더욱 필요하게 됨.

2) 정부와의 협력(주 정부, 랜싱과의 협력)

- 정부의 비영리 관련 정책 재정
- 비영리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
- 정부와 재단을 연결하는 공식 연락책

3) 교육

- 필란트로피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 비영리단체, 개인 기부자를 교육
(미시간의 전체 기부 비율 : 개인 80%, 12% 재단, 8% 기업)
-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란트로피 관련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육
- 배분/모금/운영에 관한 교육

4) 네트워크

- 각 기관을 연결하는 것
MNA(Michigan Nonprofit Association, 비영리단체 연합)와 CMF의 회원들을 연결하는 역할
- 사회 이슈 관련활동을 할 때 관련 단체들을 연결
 - ㉠ 디트로이트의 지역문제를 여러 단체가 모여 환경, 교육, 고령화 문제, 아트 등의 주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찾음.
- 정부와 비영리기관 재단들의 협력
 - ㉠ 에이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주제별로 펀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5) 청소년 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

- 미시건의 모든 주민들이 필란트로피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주민들을 독려하여 필란트로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지역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YAC(Youth Advisory Committee)의 활동을 시작함.

- 학교, 가정, 비영리단체에서 필란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를 시작함.

4. CMF(Robert S. Collier, President)에서 생각하는 필란트로피에 영향을 줬던 트렌드

1) 세대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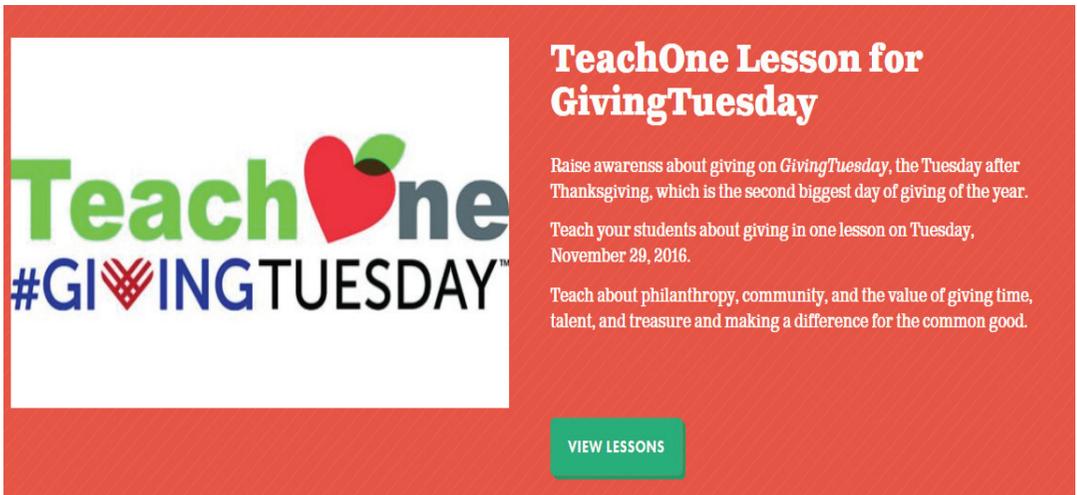
- 밀레니엄 세대의 필란트로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변화³⁾

2) 인터넷에 대한 트렌드

-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필란트로피 교육 등이 활발해짐.

예) Giving Tuesday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

: 매주 화요일에 모든 교사들이 필란트로피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The banner features the TeachOne logo with a red heart and the text '#GIVINGTUESDAY'. To the right, it says 'TeachOne Lesson for GivingTuesday'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lesson plan for GivingTuesday on November 29, 2016. A green button labeled 'VIEW LESSONS' is at the bottom right.

TeachOne Lesson for GivingTuesday

Giving Tuesday에 대한 소개와 화요일에 필란트로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LTG 웹사이트에서 교안과 함께 안내하고 있다.

3) 미국의 가족 전통적으로 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대 변화에 따라 가족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분야, 방법으로 필란트로피를 실천하길 원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연구에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필란트로피 교육 및 프로그램(YAC, LTG) 역시 그런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3) 데이터

-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그 정보가 정확한지, 편향된 정보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짐.
- 데이터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읽지 않게 됨. 따라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읽기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이 중요해짐.
- 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개인 기부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음.



2016 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Find Your Voice 2016”

1. 청소년 배분위원회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
(Youth Grantmaker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 미시간주 각 지역재단의 YAC 멤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학습하는 캠프 형태의 교육이다. 이 때, 지역조사, 배분 등 YAC 활동에 필요한 스킬을 더욱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다. YAC 멤버뿐만 아니라 신규 성인 어드바이저들의 교육과 기존 활동 중인 어드바이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 CMF에서 전체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며, 각 지역재단의 YAC 리더십 멤버들 중 선발된 청소년들이 세부 계획 및 진행을 맡고 있다.

2. 2016년 컨퍼런스 개요

-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26일(일) 2박3일
- 장 소 : 센트럴 미시간 대학(Central Michigan University)
- 주 제 : ‘Find Your Voice’



2016 컨퍼런스 리더 YAC'er(YAC 멤버를 YAC'er라고 칭한다.)
YAC멤버들 중 지원/선발된 이들이 컨퍼런스의 주제 및 세션 진행 등을 담당한다.

〈2016년 컨퍼런스 진행일정 : 2016년 6월 25일〉

시간	청소년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07:30 ~ 08:15	아침식사		
08:30 ~ 09:00	시작	소개, 워밍업-윙동	
09:00 ~ 10:00	세션별 활동 1	옹호/ 사회적정의/ 다양성/ 요구도 조사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1
10:00 ~ 10:15	쉬는시간		
10:15 ~ 11:15	세션별 활동 2	동기부여가치/ 배분/ 다양성에 맞춘 서비스/ 대중연설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2
11:30 ~ 12:45	점심식사		
13:00 ~ 14:00	세션별 활동 3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3
14:15 ~ 14:45	YPC, LTG		
14:45 ~ 16:15	시뮬레이션 활동		
16:15 ~ 17:45	자유시간	CMF 담당자와 Q&A	
17:45 ~ 18:45	저녁식사		Bob Collier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19:00 ~ 20:00	강의	Jodi-Renee Giron 강연	
20:00 ~ 21:00	열린공간		
21:15 ~ 23:15	댄스		
23:30	취침		

※ 반딧불이 참여 프로그램

3. 컨퍼런스 총괄 진행 CMF 스텝과의 질의응답

Q 컨퍼런스 기획은 어떻게 했는지?

A 2~3년 정도 컨퍼런스 참여한 12명의 리더십 멤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년 컨퍼런스의 테마를 정하는데 올해는 'FIND YOUR VOICE'이다. 컨퍼런스 총괄은 CMF의 직원이 하지만, 컨퍼런스의 포인트인 아이디어 플랜, 준비물 등은 청소년들이 직접 담당한다.

Q 컨퍼런스는 어떤 의미,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A 컨퍼런스에서 YAC의 성인 어드바이저를 모두 만날 수 있다. 미시간주에는 86개의 지역재단이 있다. 다양한 지역의 어드바이저들과 YAC멤버들이 모여 서로에게 배워가는 것이 많다. YAC 멤버들은 아이디어도 공유하지만 삶의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지역으로 돌아가서 에너지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단기간 내 많이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게 장려한다.

Q 오랫동안 매년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달라진 게 있는지?

A 함께 하는 파트너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올해에는 MNA(미시간주 비영리단체 연합)이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어떤 때는 YAC 멤버만 대상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YAC이 아닌 청소년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YAC 멤버끼리만 할 때가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 더 좋은 것 같다.

Q 올해 컨퍼런스 주요 키워드는?

A 테마 그대로, Find your voice, Empowering, Learning(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청소년들을 고취시키기, 서로 배우기)이다.

Q 세션의 주제가 사회정의, 다양성, 배분 등 다양했다. 이 주제들은 매년 있는 주제인가?

A 주제에 맞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 올해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가 그런 부분이다. 배분, 모금 등 YAC 활동에 필요한 스킬은 공통 활동으로 매년 있고, 필란트로피 외에도 이에 필요한 리더십, 스킬 등이 포함된다.

4. 각 참가 세션별 활동 참가 기록

- 2016년 컨퍼런스에서는 YAC 활동인 '지역사회욕구조사(Needs Assessment)'와 '배분(Grantmaking)'을 주제로 한 세션과 함께 토론하며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가치인 '옹호(Advocacy)', '동기가치(Motivational Values)', '사회정의(Social Justice)', '다양성(Diversity)'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YAC의 리더십 멤버(청소년)들이 직접 각 세션 계획 및 진행을 한다.
- 연수 참가자(반딧불이)들이 각 세션을 나눠서 참관한 결과, 세션 진행에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 진행자가 가르치지 않는다. 주제나 교육 내용에 대해 진행자가 정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참가자(청소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진행자는 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역할을 한다.
- 재밌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도입부분에는 주제와 관련된 놀이 활동을 많이 하며, 꼭 주제와 상관 없더라도 도입과 마무리에는 놀이 등을 통해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컨퍼런스에서 각 세션진행모습

1) 세션별 활동 :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진행안>

시간	활동	설명
5분	Icebreaker	이름, 학년, 소속 YAC,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등
5분	Name game energizer	
10분	① word map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칠판에 단어 적기.
10분	② Tedx Talk: "Social justice - is it still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영상 "Social justice- is it still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2:20-5:30, 11:58-18:07 부분) *인종차별, 페미니즘, 빈곤(아동빈곤 세계2위), LGBT
10분	반영	<진행자 질문> •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 어떤 기분이 드는가? • 특별히 놀라운 발견이나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 이 이슈와 관련하여 열정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수 있겠는가?
5분	③ Buzzfeed : "What is privilege?"	영상 "what is privilege"
15분	반영 / 마무리	<진행자 질문> •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 특권의 정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가? • 지역사회에서 편견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YAC이 이것을 어떻게 도울수 있는가?

<상세활동 설명>

① Word Map "Social Justice"

- 14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토론을 하며, 진행자들은 질문을 통해 토론을 리드함.
- '사회적 정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함.

* 이때 스마트폰 검색해도 되고, 떠오르는 생각 말해도 된다고 진행자가 이야기 해주며 부담감을 덜어줌.

* 당시 나온 생각들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
propaganda	(정치 지도자 · 정당 등에 대한 허위 · 과장된) 선전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racism	인종차별(주의)
inequality	불평등
feminism	페미니즘, 남녀평등주의
immigration	이주[이민]
stereotype	고정관념
fear	두려움
transphobia/homophobia	트랜스포비아
religious differences	종교의 차이

-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의견 나누기

* 진행자는 질문만 할 뿐, 가르치지 않음 서로 토론을 통해 배움.

*** 당시 나는 이야기**

“사전에는 ‘사회적 정의’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의 공정함이다. 이것은 부의 분배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조건에 의해 측정된다고 나와 있어”

“누구에게는 정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 상대적이다.”

② TED 영상시청

[영상] Social justice- is it still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Wtroop739uU

*** 당시 나는 이야기**

• 진행자 Q : “이 영상을 보고나서 새롭게 알게 된 거, 바뀌게 된 생각이 있는지?”

- “부자인 지역에서 자라 몰랐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홈리스, 범죄문제 있더라.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때부터 사회적 정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 진행자 Q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들이 가진 기회를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영상 “what is privilege”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hD5f8GuNuGQ

- 영상시청 후 다양한 특권이 나와 있는 종이를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특권을 체크하고 몇 개인지 포스트잇에 적어냄.

* 특권은 보이지 않는데, 이 활동을 통해 보이게 하며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당시 나는 이야기**

“특권이 많은 사람들의 역할?”

“특권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할부여 empowerment ,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줘야 한다.”

“흑인노예해방에서 백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세션별 활동 2 : 배분(Grant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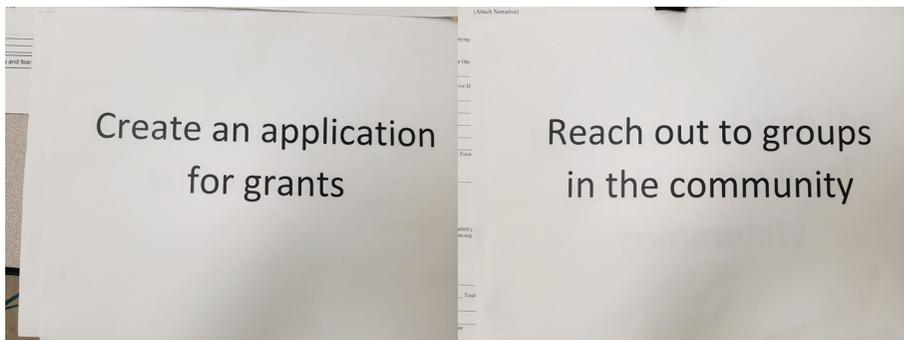
〈진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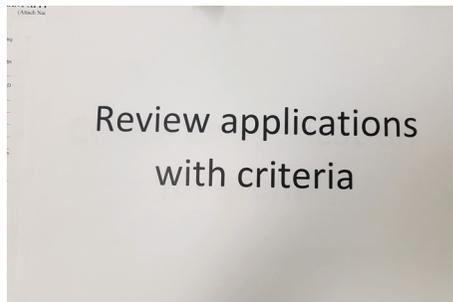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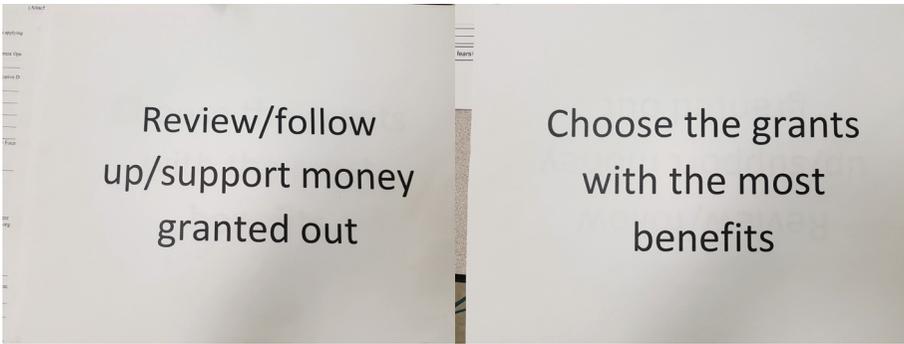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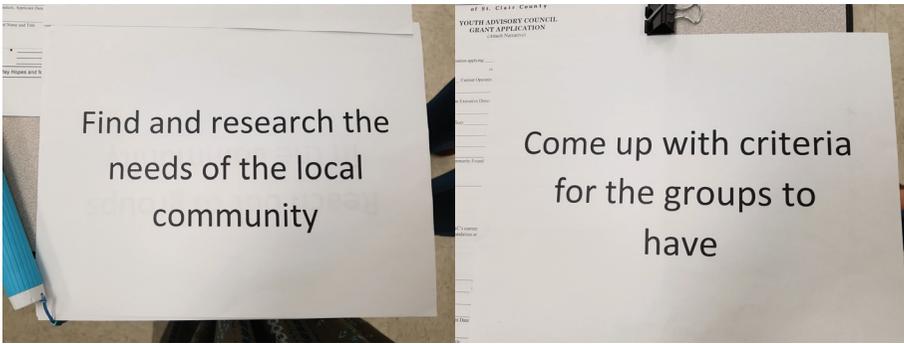
구분	활동	설명
오프닝	각자의 YAC의 차이점과 개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새로운 사람들과 짝을 이룬다. 나눠준 배분 프로세스 카드를 보고 배분 프로세스 순으로 맞춰 본다.
아이디어 모으기	앞선 경험에서 얻은 것을 이야기 한다.	각 자신이 속해 있는 YAC의 배분 프로세스와 경험에 대해서 나눈다. 〈진행자 질문〉 • 당신이 속한 YAC에서 따르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 당신이 속한 YAC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적용	모의 배분을 진행한다.	3-4명의 사람으로 그룹을 나누고, 같은 배분신청서를 보고 모의 배분을 해본다. 〈진행자 질문〉 •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어떤 문제인가? •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얼마큼의 돈을 지원할 것인가?
마무리	Hope and Fear	빨간색에는 현재 YAC의 배분과정 중 빼야 할 것. 파란색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정을 적고 의견을 나눈다.
*	시간이 남을 경우, 게임 진행	

– 상세활동 설명

1. Opening Activity

- 말없이 동작으로 학년별로 일렬로 줄선 후, 맨 앞사람과 맨 뒷사람이 짝이 되어 활동
- 배분의 순서가 적힌 종이를 조별로 나눠주고 말하지 않고 배분 순서 맞춰보기





2. 아이디어 나누기

- 개인별로 생각하는 배분의 순서에 대한 의견 말해보기
- 자신의 속해 있는 YAC에서 어떤 순서로 배분을 하는지, 배분 경험 나누기

3. 모의 배분(배분결정)

- 각 모둠에 5개의 같은 배분 신청서 나눠준 후 논의하여 배분 결정
- “2000만원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5개의 신청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어떤 문제인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효과성은 어떨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큼의 돈을 지원할 것인지?
- 그룹별로 배분 결정한 것을 발표하여, 제일 많이 지원한 신청서는 무엇이며 왜 생각이 다른지 토론하기

* 진행자의 역할 : 각 모둠별로 한번 씩 들어가서 질문에 대답해주기, 지켜보기, 고개 끄덕이기

*** 당시 나는 이야기**

Q “돈을 요청한대로 왜 다 주지 않았는가? 그 과정은 정당인가?”

A 지역사회 내에서 현재 하고 있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배분하지 않았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보았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애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YAC에서 해봤던 욕구조사에서 대학입시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걸 토대로 지원했다. 경험을 토대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외면받기 쉬운 주제여서 우리가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엔 도움이 되지만 어디엔 해가 될 수도 있다.”

4. 마무리 : Play Hopes and fears

- YAC 마다 다른 지원서 양식에서 빨간색 종이에선 빼야 할 것, 파란색 종이에선 추가해야 할 것을 작성해보기
- 작성 후, 종이를 구겨 중앙으로 던지며 종이를 무작위로 나눠서 함께 읽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의견 나누기

5. 어드바이저(성인) 프로그램

- 성인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으로 이미 활동 중인 어드바이저들은 각자의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신규 어드바이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YAC 운영의 베스트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신규 어드바이저들의 위한 역할 안내**

Best Practices 1: 연중 최소 7번 만납니다.

Best Practices 2: 지역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최소 12세-21세로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합니다.

Best Practices 3: 지식과 청소년 육성, 청소년 리더십으로 훈련된 두 명의 YAC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행합니다.

Best Practices 4: 기존 및 모든 신입회원에 대한 연간 방향과 필란트로피에 자신의 능력을 강화 시킬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Best Practices 5: 적어도 3년마다 지역청소년의 중요한 문제(이슈)를 평가합니다.

Best Practices 6: 매년 지역 청소년의 중요한 문제(이슈)를 해결하는 배분 과정에 함께합니다.

Best Practices 7: 매년 각 보조금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Best Practices 8: 매년 지역 청소년 프로젝트에 함께 합니다.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함. service learning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후 배분,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Best Practices 9: 매년 지역재단과 기증된 청소년기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금 개발 활동(모금)에 함께 합니다.(단순히 모금에 그치지 않고 모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아는 것이 중요함. YAC의 활동이 배분에 그치지 않고 점점 사회적 옹호, 사회적 정의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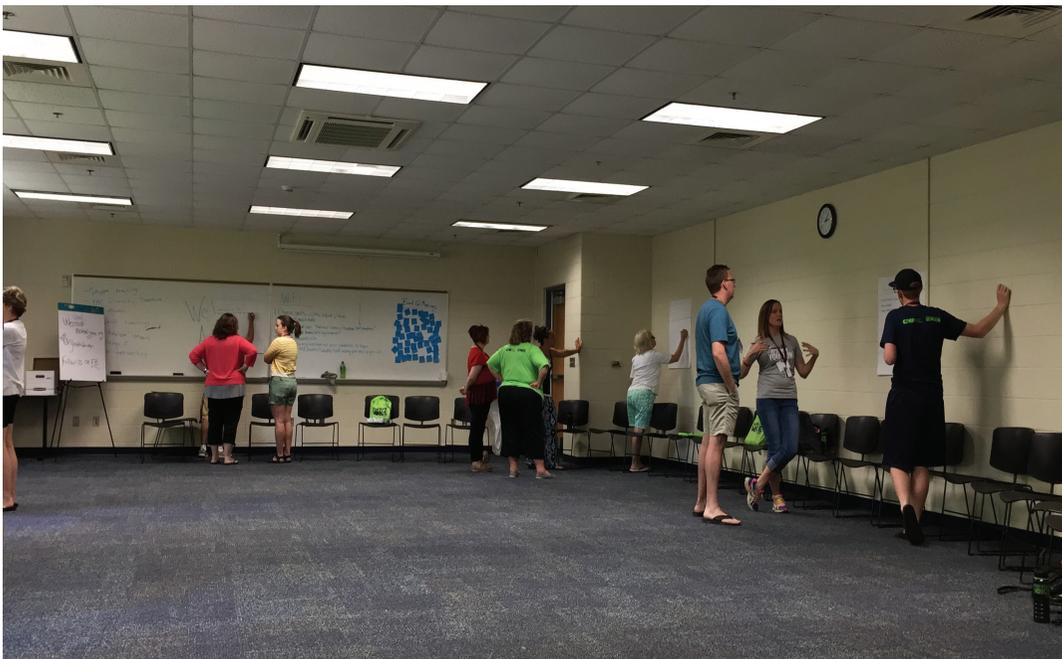
Best Practices 10: 지역재단이사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YAC 회원을 적어도 한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AC'er 의 이사회 참여 -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펀딩, 배분활동을 이사회 어른들에게 발표함.)

Best Practices 11: 지역재단 위원회, 직원, 기부자들은 적어도 연간 두 번의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YAC과 상호작용 합니다.
(청소년들이 YAC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함. YAC은 배분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모금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오리엔테이션 부터 이사회 멤버들이 함께 지역재단을 설명하고 이사회 멤버들은 YAC 멤버들을 만나고 나면 흥미로워하고, 더 긍정적으로 변화함.)

Best Practices 12: 지역재단의 연간 보고서, 웹사이트, 뉴스레터, 공개 발표회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YAC의 활동을 돋보이게 합니다.

Best Practices 13: 활동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합니다.
(연간 보고서, 웹사이트, 뉴스레터, 의사소통 방법과 발표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YAC 챔피언 뽑음.)

Best Practices 14: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 지역별 교육과 어드바이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삼삼오오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성인어드바이저들

기관명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홈페이지	https://philanthropy.iupui.edu
방문일자	2016년 6월 27일	방문면담자	Patrick Rooney / Associate Dean

1.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개요

1980년대 중반 필란트로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생산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인디애나대학교가 모금학교(The Fund Raising School)를 포함한 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여 릴리기금주식회사가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설립된 필란트로피 전문 연구소로 GIVING USA를 비롯한 다양한 필란트로피 연구로 필란트로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 제너레이션온 활동 성과 연구 등을 통해 필란트로피 교육의 효과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했다.

2. 주요 역할

- 필란트로피 지식을 생산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1) 필란트로피 연구과정(Philanthropic Studies)

- 필란트로피 학문은 필란트로피와 비영리 기관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필란트로피를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위로 정의하고, 역사적, 왜 기부와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지 비영리기관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역사적, 철학적, 경제적으로 탐구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 인디애나대학에는 필란트로피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학부생들이 필란트로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러닝바이기빙프로그램이나 비영리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펀드레이징스쿨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주요특징〉

- 인류학, 경제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참여
- 인턴십 기회 제공 : 졸업 전에 The United Way, American Red Cross, Riely Children's Foundation 등 다양한 비영리 기관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서비스러닝'을 강조하며, 수업에서의 학습을 강화하고 보조하기 위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 러닝바이기빙 코스*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지역 기관들에게 10,000달러를 배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러닝바이기빙(Learning By Giving) 프로그램

- 학부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기 위해 지역의 비영리단체에 직접 배분 하는 프로그램
 - 워렌버핏재단의 펀드로 운영되며, 인디애나대학이 펀드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중 하나라 선정되어 17년간 운영 중임
- 러닝바이기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 85%의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듣는 기술'이 항상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됨
 - 프로젝트 작성법과 배분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필란트로피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게 됨

2) 필란트로피 연구(Philanthropy Research)

- 필란트로피 분야의 트렌드를 알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 프로젝트]

- ① Giving USA : 가장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자선에 대한 연구
- ② The Philanthropy Outlook : 필란트로피 미래 전망
- ③ Philanthropy Panel Study (PP로피 패널 연구로 미국 전체 인구의 자선기부와 자원봉사를 측정하기 위한 미시간대학과 협력하여 격년으로 실시.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족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추적
- ④ Study of High Net Worth Philanthropy : 격년으로 미국의 부유한 가정의 패턴, 우선순위,

태도를 조사하는 프로젝트

- ⑤ Million Dollar List : 2000년 이후 국내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기업, 민간재단 및 기타 기금 조성 비영리 단체에 의해 100만 달러 이상 공개적으로 기부한 기록
- ⑥ Coutts Million Dollar Donors Report : 미국, 영국, 러시아, 중동,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개인, 재단과 기업에 의해 주어진 100만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는 사람을 분석한 것으로 전 세계 기부 동향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구성
- ⑦ Women Give : 남자와 여자가 기부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동기와 주기의 패턴 조사
- ⑧ Gender & Giving : 성별과 기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백서 시리즈
- ⑨ Disaster philanthropy : 주요 국내 및 해외 재난에 미국의 개인, 기업, 재단 비영리단체의 기부 현황 데이터

3. 질의응답

Q 러닝바이기빙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 설계과정 대상, 문항 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A 서베이는 주로 대학생 대상으로 그 수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 아웃컴의 경우 주로 일반적인 질문, 즉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컴패션 인덱스(compassion index)가 있는데 학생들이 클래스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많다.

Q 러닝바이기빙프로그램은 관련 전공학부생들을 위한 과정인가?

A 러닝바이기빙프로그램은 버지니아에서 처음 만들어져 진행되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학교로 전파, 성장되었고 인디애나에서 진행된 17년 되었다. 비영리, 필란트로피 관련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타과 모든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다. 처음에는 필란트로피에 대해 아무 관심 없이 참여했다가 전공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실천가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펀드레이징 스쿨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직도 학교보다 이 프로그램을 더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다.

1년에 4천~5천만명 정도가 여기서 훈련되고 있는데 반 팀은 여기서, 반 팀은 미국 전역 각지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른 나라에서 학교로 요청을 하여 계약을 맺으면 직접 그 곳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도 한다. 중국 북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다. 교수진들과 펀드레이징 스쿨에서 일하는 풀타임 트레이너와 그 지역에 있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진행한다.

Q 펀드레이징 스킴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한국에서는 펀드레이징이 마케팅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이다. 비영리단체에서 영리기업의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미국에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영리는 돈 벌기 위한 곳인데 소비자랑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가격과 서비스가 맞으면 거래가 된다. 그러나 비영리는 다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같은 점을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금과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펀드레이징은 영리와 다른 부분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가 영리는 일대일의 관계라면 비영리는 기부자와 단체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니 프로세스가 다르고 서비스를 주는 사람한테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돈을 기부 받아야 하는 사람한테 달라야 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자들에게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수치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곳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스토리에 대한 감정적인 글을 요구할 때도 있다. 즉, 각각의 기부자들에게 맞춰서 측정하는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에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영리기업의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부자의 성향이 양적인 수치를 보기를 원할 경우 양적인 툴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영리기업에서 하는 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다. 마케팅을 하는 것도 도너들에게 하는 것과 고객들에게 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 잘 알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 기관을 잘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케팅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서비스에 사용할 비용이 적어지고, 서비스에 치우치면 우리 기관에 돈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 기부자들은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빨리 고치기를 원한다. 독일은 미국보다 좀 더 길게 본다. 마케팅 통해서 원인을 찾고 빨리 해결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마케팅이 할 수 있다(도너들이 더 빨리,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는 경우 영리기업의 마케팅기법을 더 가져와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Q 그와 연계하여 또 최근에 한국에서 비영리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A 우리가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기관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로 어떻게 모금을 하고 썼는지 물어봤더니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해서 통계내기가 힘들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기관이 펀드레이징할 때 비용을 많이 하고 운영비는 줄이고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다.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많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갈 때도 있고 어떤 기관은 펀드레이징 할 때 돈을 하나도 안 쓰기도 하는데 스페셜 펀드레이징 할 때 따로 쓰고, 교액기부자 따로 쓰는 등 굉장히 다양하더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펀드레이징에 써서 서비스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 줄이기 위해서 운영비를 보고할 때 총체적이 아니라 서비스할 때 그 속에 운영비에 포함해서 쓴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를 통해 운영비 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너무 다양하지만 펀드레이징의 경우 솔직하게 보고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새로운 기관일수록 펀드레이징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낮아지고,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운영비 자체로 봤을 때 큰 기관일수록 쓰는 비용의 비율이 작아지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펀드레이징의 비용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유자곡선이 되나 운영비의 반비례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건 대략적인 것이지 문화적인 것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내리긴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5~20%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 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펀드레이징의 경우 캠퍼스에서 펀드레이징 개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부 받을 때랑 다른데 일반적인 돈을 받을 때는 35%를 사용한다. 부서에서 펀드레이징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일반 주요 목적으로만 사용기 위해 펀드를 받을 경우에는 10%만 사용할 수 있는 등 부서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

Q 최근 특별하게 관심 갖는 연구분야나 필란트로피의 비영리에서 두드러진 변화나 트렌드는 무엇인지 있는가?

A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로는 기빙유에스와 같이 서베이를 해서 기빙 트렌드를 보는 거다. 어떻게 얼마 정도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다. 최근에는 아마 선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기부와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한다. 정치성향에 따라 기관에 하는 기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세대연구이다. 4대를 보면서 가족 내에서, 세대별로 기빙에 대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이터 구축하는 것을 여기서 많이 한다. 한 해에 기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7년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할머니 때, 아버지 때, 본인 때 기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부모의 성향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보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근에 펀드를 받아서 진행 중인 연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그 지역의 욕구와 기빙이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연구이다.

다른 프로그램, 리서치만 하는 단체로 부속연구원 센터의 느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우먼필란트로피이다. 어떻게 여성들의 기빙은 다른지, 미/기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등 자세하게 본다. 연구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 여성이 기빙에 좀더 참여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가족에서 내려오는 기빙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잘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종교적인 영향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기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기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고 있다. 특별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http://www.rileykids.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7일	담당자	Susan Miles / Kids Caring & Sharing Officer

1. Riley Children's Foundation 개요

1924년 미국의 시인 라일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디애나주의 어린이병원인 라일리병원(Riely hospital)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다.

라일리 병원은 인디애나주의 유일한 어린이 병원으로 소아과 분야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와 가족 중심의 환자 케어, 가족 지원(긴급재정지원 등)으로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어린이병원 중 하나이며, 정부의 지원금 없이 100%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모금을 하며,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 하나로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라는 어린이 모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 모금

- 정부 지원금 없이 기부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 재단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직접 모금 이벤트를 만들거나 참여하여 재밌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최근 빨간 티셔츠를 입고 진행되는 모금이벤트에 600개의 학교가 참여하여 180만 달러를 모금

① 다른 사람이 만든 모금 이벤트에 참여

웹사이트에서 이벤트 유형이나 지역으로 모금이벤트를 검색하여 참여 할 수 있다.

Join an Event

Events for Riley Children's Foundation provide critical funding to Riley Hospital for Children. More than 60% of Riley patients are on Medicaid or uninsured, and more than 50 clinical programs and patient medical services are not covered by Medicaid or insurance. Generous donors ensure that Riley continues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services and research our children need. **Riley Hospital promises to never turn a child away due to the family's inability to pay.** Please select the event you want to support.

Event Search Type
 Search by Event Information
 Search by Distance

Event Name:

City: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모금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모금 이벤트 기획

자신이 직접 모금 이벤트를 기획하여 친구, 가족, 회사동료 등과 함께 기부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벤트를 공개/초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Event Application

Please provide your contact info so that we can respond to your inquiry.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may make it easier for us to get back to you.

* Name:	Title	First	Las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Email:	<input type="text"/>		
Street 1:	<input type="text"/>		
Street 2:	<input type="text"/>		
City/State/ZIP:	City	State	ZI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Phone Number: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 would like to receive postal mail from Riley Children's Found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Keep me logged in. What's this?			

웹사이트에서 모금 이벤트 기획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

학교나 방과후 그룹 단위로 어린이들이 라일리 병원의 연구(치료법 개발) 비용을 위한 모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 아이디어, 모금이벤트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모금도구(모금함, 포스터 등)을 제공한다.

라일리어린이재단은 별도의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학교나 그룹 교사들이 LTG (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의 교안이나 제너레이션온의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라일리에서 자체적으로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고 누구나 쉽게 모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한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연구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한다.

인디애나 학교 교장 연합(The Indiana Association of School Principals)이나 인디애나 학생위원회 연합(the Indiana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에서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을 알고 모금의 우선순위로 둘 정도로 인디애나주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라일리 병원을 상징하는 빨간색 웨건에 참여한 학교 이름을 새겨준다.
웨건은 실제로 병원 이용객들이 많이 쓰는 물품이다.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금함,
티셔츠 등 모금이벤트에 필요한 물품을 별도로 신청 구매할 수 있다.

3. 질의 응답

Q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모금을 한다는 것에 우려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다. 아이들이 모금을 할 때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어른들이 걱정하지는 않는가?

A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모금하는 거다.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나 걱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작은 하나라도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학교에서 LTG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배우고 아이디어 얻어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한다.

〈라일리 병원 투어〉

Susan Miles의 안내로 라일리 병원을 둘러봤다. 라일리 병원 곳곳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라일리 병원만의 서비스와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부금의 사용처가 한눈에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 Zone]

병원 밖에서의 생활처럼 파티, 이벤트, 놀이 등 할 수 있도록 환자(아동)들의 공간이다. 지역주민에게 오픈하지 않지만, 기부자들을 초대하여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게임을 통해서 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며 환자들이 스스로 아픈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방송국]

병원 내 방송국을 통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게스트로 나와 병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 모금활동을 한 동영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상을 통해 병원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들이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브릿지]

라일리 병원 병동과 연구소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라일리 병원이 다른 곳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연구하여 새로운 치료법, 신약을 개발하고 바로 임상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의 모금액 역시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데,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 중에 과학자가 꿈인 학생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다. 내가 모금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

초창기 건물 로비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 등을 기증하기도 한다. 또한 도서관에는 라일리병원의 역사와 기부자들의 삶을 담은 그림이 걸려 있다.



[게스트룸 및 하우스]

라일리 병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배려한 공간과 서비스가 많다. 가족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52개의 게스트룸과 6개 하우스가 있는데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아이를 밤새 간호하느라고 잠을 못자는 가족들이 있으면 간호사가 엄마들 휴식을 권하기도 한다. 갑작스레 아무런 준비없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기부 받은 물품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 준다.

[병실]

병실은 모두 1인실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원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액티비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학교 친구들과 소통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입원한 아이의 자리에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해 준다. 학교 친구들은 곰을 입원한 친구처럼 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입원한 친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며 소통한다.

[기타]

병원 곳곳에는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공간, 인테리어들이 많다. 처음부터 돈을 모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린이들을 위해 리사이클할 수 있는 캔뚜껑 모으기를 안내하거나, 그동안 Kids Caring & Sharing for Riley Hospital 등을 통해 모금활동을 한 기부자들의 모습을 병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www.ypin.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7일	방문면담자	Jill Gordon / Program Director

1. YPI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Indiana) 개요

1) YPII 간략 소개

인디애나주에서 기금을 배분하는 개인, 기업, 지역 재단 등의 연합체인 인디애나 필란트로피 연합(Indiana Philanthropy Alliance)에서 인디애나주의 유스 필란트로피 발전을 위해 YPI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Indiana)를 만들었다. YPII는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 기관에 교육과 가이드,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여개의 기관들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적인 미팅 및 필요한 리소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2) 히스토리

2001년 청소년들이 필란트로피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비영리단체와 재단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8개 기관에서 출발하여 현재 40개 이상의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3) 미션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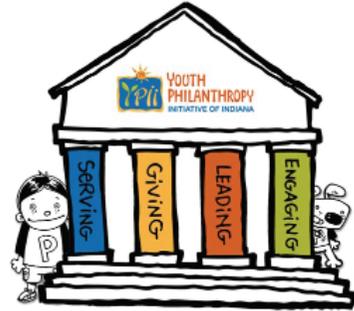
- 미션
 - 시간, 재능, 재물을 공익을 위해 나누고자 하는 필란트로피스트를 양성한다.
- 비전
 - 모든 청소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필란트로피를 깨닫고 교육받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디애나의 유스 필란트로피

유스 필란트로피를 크게 4가지(자원봉사, 기부, 리더활동, 참여)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YPII는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이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가족 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의 성공적 요소〉

- 필란트로피 교육과 훈련
- 리더십 개발
- 지역이슈에 따른 배분 또는 기부
- 지역사회 봉사
- 시민참여
- 개인 기부 장려금
- 모금 이벤트 및 활동
-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개발



〈유스 필란트로피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스킬〉

- 의사결정과 비판적 사고 스킬
- 비영리 기관에 대한 인식
- 배분 경험
- 리더십 기회
- 대중연설과 커뮤니케이션
- 협동
- 퍼실리테이션과 조직화 스킬
- 관계 형성
- 모금과 개인기부

* 현재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스텝들의 과제

- 청소년들의 책임감
- 청소년, 어른, 학교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활동
- 새롭고 재밌는 자원봉사 프로젝트
- 어른들의 가이드와 청소년 주도의 균형
- 성인 자원봉사자 찾기

3. YPII의 역할

YPII는 재단, 비영리 단체, 청소년기관에 컨설팅 제공, 기술적인 지원, 교육 리소스 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디애나주 전체의 효과적인 유스 필란트로피의 향상을 돕는다.

1) 교육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YPII 스텝과 직접 상담
- 유스 필란트로피 컨퍼런스
- 맞춤형 유스 프로그램 교육훈련

- 유스 필란트로피의 트렌드 및 좋은 사례 제공
- “Phil & His Family’s Adventures In Philanthropy” 리소스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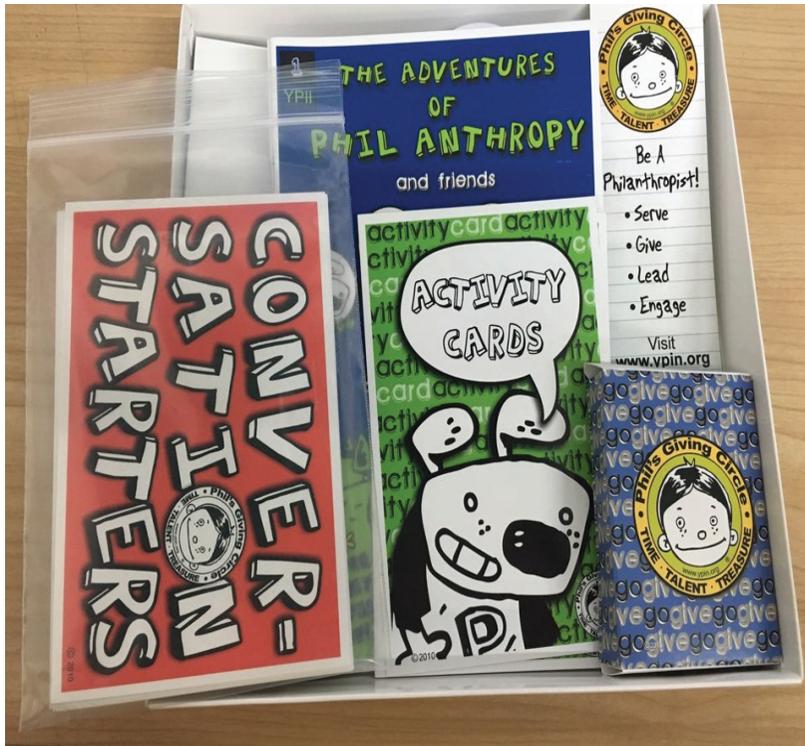
Civic Engagement through Youth Philanthropy

Civic engagement is a natural next step when a young person learns to serve and give. Youth leaders will identify the needs as well as the assets of their communities. This session will explore how youth can inspire and ignite community-wide civic engagement through their philanthropy programs.

Key Audiences: Youth and Adult Leaders (This training is suggested as a follow-up to Youth Philanthropy 101 and is recommended for established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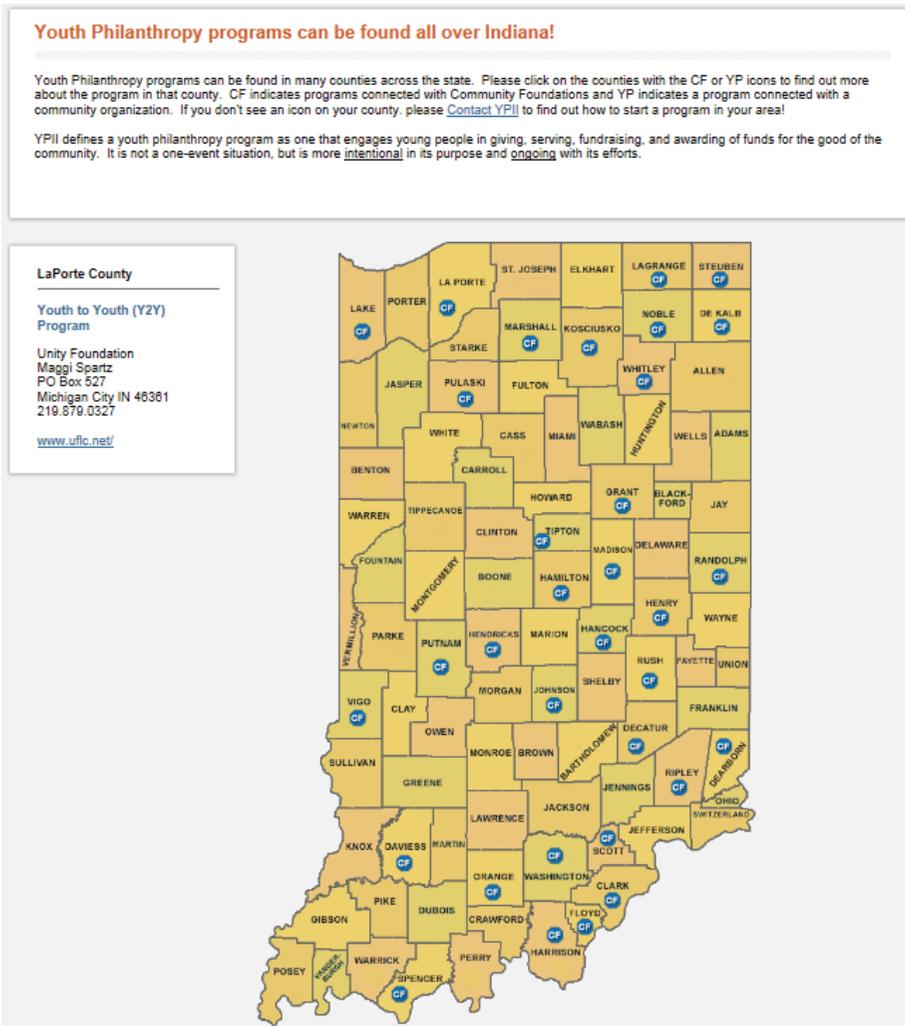
YPI 웹사이트에 소개된 교육 프로그램
 필란트로피에 대한 이해, 시민참여, 모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청소년과 성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Phil & His Family’s Adventures In Philanthropy” 툭박스
 2007년부터 준비하여 제작한 툭박스로 가이드북과 필란트로피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카드와 실천방법 등을 소개하는 카드 등이 있다.

2) 네트워킹

- 인디애나주에서 유스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재단, 비영리단체과의 파트너십
 - 인디애나주에서 유스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매월 정기적인 미팅 및 교육을 진행하며 유스 필란트로피 성장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무자들을 돕는다.
 - 유스 필란트로피를 활발히 진행하는 단체의 노하우를 웨비나를 통해 교육하고, 참고할 수 있는 교안, 사례 등을 함께 만들고 확산한다.
- * YPI의 파트너 네트워킹에 이번에 방문한 제너레이션온 인디애나와 라일리어린이재단도 포함되어 있다.



유스 프로그램 지도

YPI에서는 인디애나주에서 유스 필란트로피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 인디애나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전세계 유스필란트로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려고 최근에 노력 중이며, 2016년 6월 오픈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스필란트로피 관련 교육자료, 사례,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웹플랫폼 youthgiving.org에 참여하였다.



EXPLORE
Funding Map &
Program Directory

LEARN
Resources

CONNECT
Events, News,
Experts, & Peers

ABOUT



youthgiving.org 웹사이트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스 필란트로피와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youthgiving.org에 함께 참여했다.

4. 질의응답

Q 인디애나의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이 미시건주의 YAC와 유사하게 보인다. 차이점이 있는가?

A YAC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서비스러닝, 모금, 배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러 파트너들이 있다. YAC가 각 지역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우리는 지역재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_파트너들 안에서 동아리로 활동한다. 여러 기관의 아이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을 할 수 있다.

Q 여러 기관에서 유스 필란트로피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은?

A 학교나 주로 청소년들이 모여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교육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필요할 때는 교사나 퍼실리테이터들에게도 워크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 박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두고 온다고 한다.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젊은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Q 파트너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는 활동이 있는가?

A 한 달에 한번 미팅을 가진다. 단순한 네트워킹만이 아니고 모금 방법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공부하며 파트너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개인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기관들이 유스 필란트로피를 옹호하기 때문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톨도 나눈다.

다음세대가 필란트로피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 기관에서가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활동(YPI)이 시작 되었다.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모여 함께 일한다.

Q 그렇다면 필 박스와 같이 유스 필란트로피를 진행할 수 있는 톨을 만들 때도 파트너와 함께 하는가?

A 모두 함께 만든다. 개인적으로 미술관에서 교육담당으로 있을 때 필박스를 제작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고 프로그램 테스트도 3년간 했다. 예술가들이 디자인을 도와주고 완성한 후에는 배포를 위한 모금도 모두 함께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았다.

필 박스는 어떤 기관이든 요청하면 트레이닝과 기프트 박스를 전달해 준다. 대상에 따라 고등 학생강사나, 성인강사로 달라질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기프트 박스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Q 필 박스에 있는 질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A 질문카드는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다. 큰 그룹 또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질문카드를 이용해 필란트로피를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질문카드 중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

Q 필 박스 사용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단순히 박스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모금하는 방법, 유스 필란트로피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두 명의 담당자가 있고 3,4명의 트레이너들이 있고 컨설턴트들이 있다.

Q 필 박스를 사용한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단회기, 다회기?)

A 자유롭게 사용한다. 보통 5회기 정도로 하고 있다. 한 주 동안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캠프에서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다. 질문카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이사회나 파트너들과의 대화 주제로도 자주 사용된다.

Q 파트너 단체들이 주로 어떤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는지?

A 보통 기관들이 하고 있는 활동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기관마다 모금, 배분 등으로 주제가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그 기관과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매년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예를 들면 15~17세의 아이들이 유스 필란트로피 주제로 가족 이벤트를 만들었다.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서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부되어지고 있는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펀드레이징)했다.

Q 파트너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A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기관이면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파트너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여기는 '얼라이언스 : 연합'이기 때문이다.

Q 필란트로피를 실천 할 때 가져야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A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자라서 사회에 나눠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발견된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워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 들을 보았을 때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어리긴 하지만 모두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독려 시키는 게 중요하다.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전 생애가 필란트로피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지금 미팅에 함께 참여한) 에릭도 13년정도 지역재단에서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면서 자랐다. 이것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 연구의 인터뷰에서 22살의 어떤 청년은 릴리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고 지역재단에서 일하게 되는 것에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들도 알 수 있게 해 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Q 유스 필란트로피 활동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있는지?

A 미시간의 유스컨퍼런스처럼 아이들끼리 하는 컨퍼런스가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와도 함께하려고 한다. 미시간의 YAC과 함께 하기로 이야기했다. 작은 세상

에서 연결되어 서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방문해줘서 좋고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글로벌하게.

Q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 프로그램도 활용하는가?

A 파트너 단체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때 꼭 LTG 사이트를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다.

기관명		홈페이지	http://generationon.org/
방문일자	2016년 6월 28일	방문면담자	Joan Belschwender / Director

1. 제너레이션온(generationOn Indiana) 개요

제너레이션온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향하는 전국조직인 촛불재단에서 만든 유스 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 클럽, 가정 등에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아이디어, 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인디애나의 경우, 촛불재단 기금 외 릴리 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학교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했다. 학교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 모금, 배분 등 다양한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을 이어가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미션

청소년들이 봉사를 통해 사회와 스스로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한다.

2) 주요 역할

청소년들이 학교, 클럽, 방과후 프로그램, 가정 등에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알고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2. 주요 프로그램

1) generationOn Schools

웹사이트의 리소스(LTG 교안 등)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서비스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너레이션온 인디애나는 특히 학교에 집중하고 있음. 교사들이 교실에서 필란트로피 교육과 서비스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인디애나의 교사들은 서비스러닝을 단순히 봉사활동,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러닝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과 교과과정을 잘 접목시키는 것임. 즉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함.

- IMLEA(The Indiana Middle Level Education Association, 인디애나중등교육연합)과 협업하여 학교 교사에게 알리고 교육(IMLEA에서 컨퍼런스나 미팅이 있을 경우 제너레이션 온에 대해서 꼭 한 세션을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 과목별 교사모임, 교장 모임 등에도 참석하여 정보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이 서비스러닝을 할 수 있도록 릴리재단의 기금(2500만달러)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2) generationOn Clubs

청소년들이 학교, 지역 기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클럽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 클럽 멤버들은 함께 지역, 국가,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의 임팩트와 성공 스토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 generationOn Kids Care Club : 초등학생, 현재 2,000개 이상의 클럽이 등록
 - generationOn Service Club : 중고등학생, 2012년 시작되어 200개 이상 등록
- * generationOn Service Club 외에 중고등학생들은 “Do your Own Thing Guide”를 토대로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National Youth Advisory Council의 멤버로 지원하여, 제너레이션온의 주요 서비스 프로젝트의 개발과 진행을 돕고, 10대들이 사회참여와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다.



Do your Own Thing Guide

지역사회이슈를 찾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GenerationOn 사이트 소개

The screenshot shows the GenerationOn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Home, Programs, Professional Development, Lessons & More, Track & Share, and Shop generation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Projects'. On the left, there's a 'Resources' sidebar with a list of items: Why Service-Learning?, Learning to Give Lessons, Thematic Guides, IPARDE Resources, Projects, Livebinder, and Calendar 2015-16. The main 'Projects' section includes social media icons (Facebook, Twitter, LinkedIn, YouTube, Google+, Facebook Like) and a paragraph of text: 'Are you an animal lover? Maybe reduce, reuse, recycle is your motto! You might be super artistic or maybe you see the value in creating meaningful education for your students. Whatever your talents and interests, you can find ways to give back to your community and make a difference in the areas you care about the most.' Below this is another paragraph: 'Bringing real world learning opportunities to your students could be the key to creating meaningful change in the world. Use our projects to help!'. A photo shows a group of people in blue shirts posing in a hallway. At the bottom of the screenshot, it says 'In March we are Making our Mark on Hunger!' and 'www.generationon.org'.

웹사이트를 통해 연령별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리소스를 프로젝트를 이끄는 청소년, 가족, 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에듀케이터 탭 : 교사들이 활용할 있는 리소스
- Program : 제너레이션온 학교 디렉토리와 등록
 - * 스쿨디렉토리 페이지에서 미국전역에 있는 학교들이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하면 학교별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음. 현재 150개정도의 학교가 등록되어 있음.
 - 학교 페이지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장 (이때 교사들이 바뀌어도 학교별로 확인할 수 있음. 교장선생님들도 페이지만 들어가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 페이지를 사용해야 함. 그리고 릴리재단에 펀드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 Lesson&More : LTG(Learning To Give, 러닝투기브) 연계 커리큘럼, 서비스러닝단계, 프로젝트 등 자료

3. 질의응답

Q 뉴욕에 있는 제너레이션온은 지역사회에서 클럽 중심의 유스 필란트로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교실 수업 중심의 유스 필란트로피이다. 뉴욕에 있는 제너레이션온과의 차이가 있는가?

A 제너레이션온은 주마다 거의 다 있는 네셔널펀드들이 있고(촛불재단과 + 몇 가지가 더) 그 펀드만으로 각 지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클럽과 이벤트들만 한다.

하지만 인디애나의 경우 릴리재단에서 추가한 펀드가 있어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Q 학교에서 필란트로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LTG의 베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자료를 잘 만들어냈고, 학년/과목별로 세분화된 수업레슨이 잘 만들어졌다. 미국도 교육 스탠다드가 주마다 다른데 LTG는 주마다 교육 스탠다드에 맞게 자료를 구축해놓고 있다. 교사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아메리콤피 코디네이터로서 대부분 해주니,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만들어진 교안 그리고 학교 하나에 잘 할 수 있는 교사 한 명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교안, 리소스와 핵심교사(멤버)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지역사회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돈을 받고 참여 시킬 수 있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같이 배운다.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일할 지 모르지만, 필란트로피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스킬이다. LTG에 교안(writing to persuade)이 있다.

그리고 학습과 봉사(프로젝트)가 결합하여 함께 가야 한다. 이유와 목적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이디어만 교사들에게 주면 수업에 맞게 자신들 방식에 맞게 잘 활용한다.

Q 유스 필란트로피를 위해 제너레이션온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A 학교 안에서 코어멤버를 찾는 일. 그리고 학교 외 지역에서 전파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제너레이션온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교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스피치, 트레이닝을 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3,000개 학교(k-12) 중 서비스러닝을 하는 학교가 700곳이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교사들이 커리큘럼을 짤 때 LTG 사이트를 알려주며 연결해주려고 한다. LTG 사이트에서 캘린더를 교사들이 좋아한다(미국 학교 일정에 맞춰 가을학기 시작부터 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필란트로피 교육은 아이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미국에서 강조하는 것이 보이시(자기가 알고 해야 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야 함), 그리고 스스로 선택,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서비스러닝을 통해 잘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는가. 필란트로피는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서로 신뢰를 주고 받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 신뢰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서 2016

발 행 일 2016년 9월 5일

발 행 처 아름다운재단

주 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옥인동)

전 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서 2016